



문화매일신문



제1515호

2024/1/10/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김동연 지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 광고에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고테크노벨리를 찾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광고에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수원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박광은 국회의원, 광고테크노벨리 입주기업, 바이오 전문가 및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시절부터 광고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던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 꿈이 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아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면서 “경기도 바이오산업이 광고, 시흥, 고양과 성남과 화성으로 나뉘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고테크노벨리는 5곳을 묶는 거점이다. 광고에 바이오 스타트업(새싹기업)이 등지

를 틀 수 있게끔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테크노벨리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가장 모범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서 거대한 역사를 이뤄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박광은 의원은 “광고테크노벨리 중심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날 광고테크노벨리 내 옛 바이오장기 연구센터 부지를 개발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광고를 경기도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고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연간 500명), 바이오스타트업 보육(연간 15개사 내외), 도유재산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참석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한편, 광고테크노벨리는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바이오·헬스기업 200여 개사가 입주해 있다. 단지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위치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전국 최대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지인 ‘대한민국 유기농업 1번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천604억 원(자부담 243억 원)을 들여 지속 가능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주요 정책 방향을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과 과·채소 등 품목 다양화 및 농가 경영안정,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 안정적인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야별로 유기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0억 원 ▲친환경 비 집적화 인센티브 16억 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75억 원 ▲농기계 임대 지원 등 유기농업자 지원 172억 원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2억 원 등 13개 사업에 737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경영안정과 과·채소 등 인증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148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불금 75억 원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인증비 지원 97억 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왕우렁이 공급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과·채소 전문단지 조성 30억 원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11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인프라) 구축 10억 원 등 11개 사업에 772억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 농업인 의식교육 강화와 함께 ▲국비 지원이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3억 원 ▲수도권 향우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5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 7억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18억 원 등 11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한다.

토양환경 보전 및 지역 중흥을 위한 벗짚 환원사업 26억 원을 비롯해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2억 원 ▲전략품목 육성 지원 3억 2천만 원을 지원,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신규사업도 펼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유기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도록 판로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월 초 현재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의 51%인 3만 5천 417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기농 인증면적의 61%를 차지, 명실공히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로서 범국민적 관심과 전국화를 주도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서울시, 따릉이-현대백화점 H포인트 연계...민·관 함께 자전거 활성화

민·관 함께 자전거 활성화 노력...3월 분철 안전 이용 수칙·친환경 정책 알리는 캠페인도 추진



은 이미지를 공익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하여 서울시, 현대백화점 옥외전광판 및 사회관계망(SNS) 채널에서 홍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릉이 성수기인 3월 추진하는 이벤트에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따릉이 수익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온 기업용 따릉이 이용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기업용 따릉이 이용권은 2023년 1년 동안 총 9개 기관에서 내부 임직원 출퇴근용, 외부 프로모션 활용 등의 용도로 약 1.4억원 가량이 판매됐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12월 공공자전거 따릉이 100대를 기부하는 등 친환경 자전거 문화 확산 및 탄소저감 실천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기부 받은 자전거는 12월 검수 과정을 거쳐 서울 전역의 따릉이 대여소에 배치됐다.

한편 따릉이는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누적 회원수 423만 명 돌파, 연간 대여건수 44,905천건을 달성하며 2022년 누적 회원수 372만 명 대비 13%, 연간 대여건수 40,949천건 대비 10%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준창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따릉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자전거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익구조 다변화, 폭넓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친환경 공공 교통복지인 따릉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올해 도로 분야국비 1조 4,799억원 투입...사업추진'박차'

지난해보다 1,276억원 증액 반영, 국회 심의과정서 202억원 추가 확보



경북도가 2024년 도로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국비 1조 4,799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각종 국비보조사업이 지출 구조조정되어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부예산은 전년도 22조 4천억원에서 올해 22조 1천억원으로 3천억원(△1.4%)이 감소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기재부 및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부안 1조 4,597억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북도는 최종적으로 도로분야에서 23년 1조 3,523억원 대비 1,276억원(9.4%)이 증액된 예산 확보 성과를 거뒀다.

2024년에 추진될 주요사업에는 △영일만횡단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35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10속, 2,907억원) △포항-안동 국도확장(1,353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192억원) △단산-부석간 국지도개량(14.4억원)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166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 횡단간 고속도로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후 15년째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됐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된 후 지난해 정부예산 125억원에 이어 올해 1,350억원을 확보해 실시계획에 착수하게 됐다.

또한, 신규 착공사업으로 국도 안

동 풍산-서후(L=11.2km, 1,776억원), 성주 선남-대구 다사(L=9.5km, 1,395억원), 경주 외동-북동-문산(L=4.4km, 571억원), 청송 진보-영양 입암(L=5.4km, 920억원), 청송 청운-부남 감연(L=3.8km, 328억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김천 양천-대항(L=7.02km, 1,073억원)구간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할 70억원을 확보했으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진입로(L=2.1km, 4.22억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설계 지구로 10억원이 반영됐다.

중공 사업은 국도 안동-영덕(L=21.9km, 2,041억원), 영양-평해(L=14.65km, 740억원), 군위-의성(L=14.8km, 479억원), 구미-군위IC(L=10.5km, 505억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안동 용상-교리(L=15.64km, 3,246억원)에 1,017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신규사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 및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예산 증액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도는 올해도 연초부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하며 바로 뛰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등 지역현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민관과 함께 따릉이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선다.

1월 10일부터 따릉이 앱과 현대백화점 H 포인트 사용을 연계할 수 있게 돼 간편하게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H 포인트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로 따릉이 앱 내 포인트 전환 메뉴를 통해서 1,000원 이상 100원 단위로 월 최대 20,000포인트까지 전환 가능할 예정이다.

민간 포인트를 따릉이 앱과 연계하여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 사례다.

따릉이 포인트로 전환한 H포인트는 모든 권종의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반남 지역으로 발생한 초과요금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타 결제 수단과

의 통합결제에는 이용권 구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요금은 전액 전환 포인트로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주)현대백화점은 따릉이 앱에서 H 포인트를 전환 사용하는 내용 외에도 기업용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여 연계 프로모션 등에 활용하는 내용과 따릉이 x 현대백화점 연계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지난 2023년 7월에 추진했다.

해당 협약은 친환경, 탄소 저감 실천 등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H 포인트 활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현대백화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금년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은 다가오는 3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친환경 교통복지 정책 등을 봄의 감성을 담아 따뜻하고 즐거

강원특별자치도, 트립닷컴 임직원 초청 팸투어 추진

글로벌 최대 온라인여행사(OTA) 중국 트립닷컴의 TNT 여행사업부 CEO를 비롯한 임직원 팸투어단 15명이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겨울철 체험상품 개발을 위해 춘천 남이섬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경기장, 강릉 아르떼뮤지엄, 강릉 커피거리, 주문진 BTS 버스정류장, 도깨비 한류 촬영지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답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트립닷컴은 최근 국제이벤트 대회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와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개별관광객 주요방문지인 춘천 남이섬에 눈썰매 체험 프로그램과 공동 홍보부스 운영하는 등 공동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10일 올림픽 개최지 평창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트립닷컴 TNT 여행사업부 CEO(지이화)를 비롯한 임직원과 함께 강원 동계, 웰니스, 한류 등 체류형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트립닷컴으로부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마케팅 추진에 감사하는 '전략적 협력파트너십'이 정광열 부지사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트립닷컴 팸투어단은 1월 10일 춘천 남이섬을 방문 눈썰매 체험 및 강원 스노우페스타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11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기념관 전시관람과 겨울철 체험상품개발을 위해 용평리조트 스키체험과 송어축제장을 방문하고, 12일에는 강릉의 아르떼뮤지엄과, 커피거리, 주문진 BTS 버스정류장, 도깨비 한류촬영지 등 주요 관광자원을 답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트립닷컴은 국제관광 활성화 및 여행트렌드 다변화 대응을 위해 동계, 축제, 한류, 웰니스 등 관광콘텐츠를 활용 외국인관광객시(프라이빗 FIT투어), 웰니스(클린강원&안심관광), 강원 스노우 페스타(동계&한류체험) 홍보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 트립닷컴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도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더욱 알리고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충남도, “지역 미디어 육성·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충남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미디어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도민의 민주적 여론 활성화와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는 2011년부터 매년 20개 내외 언론·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에 등록된 일간·주간지, 충남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이다. 지원분야는 △기획취재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역언론인 역량강화이며, 신문은 건당 1000만원 범위에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은 건당 4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충남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을 전국권역으로 송출 시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최정근/기자

지역언론인 역량강화는 도내 신문사 연합회가 주관해 언론 토론회(세미나) 개최 시 5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서는 도청 누리집 행정-도정공고-공고·고시 및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지방보조금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최원혁 공보관은 “도내 등록된 많은 언론사가 지역미디어 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해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경북도의회, 전국 유일 광역의회 1등급 달성

2021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최고등급 경신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균(75.9)보다 7.7점 높은 83.6점을 받았으며, 기초의회 75개를 포함한 전체 의회평균(68.5)보다는 무려 15.1점이 높았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의회와 관련 있는 직무 관계자 128명, 단체 및 전문조사 68명, 지역주민 3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

산해 종합적으로 산출됐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이번 1등급 쾌거는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배한철 도의장의 강력한 부패방지 의지와 사무처 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노력의 결과로 알려졌으며,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북도의회의 청렴운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 용인형 스마트 도시 정책 수립의 초석 다지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은 2023년 한 해 동안 초연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의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용인시의 더 나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안치용(대표), 김태우(간사), 김윤선, 김희영, 신민석, 안지현, 이진규 의원(7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1년간의 활동을 돌아봤다.

'초연결도시 용인'은 2023년 3월 연구단체 회원들과 관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단체의 운영방향과 연구 목적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활동을 시작했다.

'초연결도시 용인'은 가장 먼저 전

문 기관인 베스트 리서치와 함께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사점 연구' 용역을 수행했는데, 4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에서 용인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시사점으로 스마트농업지구 산단 공급망 구축안, 드론활용 농업 데이터 축적안, 스마트관광 연계 방안 등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안치용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7월에는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에서 최우수에 선정됐던 대구광역시를 벤치마킹했는데, 대구 스마트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전국 최

초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방향 전반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안치용 대표는 “도시 데이터를 시민이 가꿀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산학관 협력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이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며,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에 금일 방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초연결도시 용인'의 활동과 연구 결과가 용인형 스마트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용인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석이 되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범상/기자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 울산상고, 언양고 소관 토지를 활용한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울주군과 협조하여 학교 담장 밖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가로등 설치 추진 필요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8일 울산상업고등학교 및 언양고등학교 소관 토지 활용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울산상고와 언양고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교육청 담당부서 공무원 및 학교 교직원 그리고 울주군의회 박기홍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울산상고 소관의 학교 담장 밖 부지에 주차장 조성 요구와 언양고 소관의 담장 밖 또는 경계 부지에 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었다.

교육청 및 학교 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 후 “주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울주군에서 학교 부지에 대해 해당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허가를 요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현장중 직접 확인

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 시설 조성 부지는 학교 소관 토지나 편의시설의 설치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울주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울주군의회에서 울주군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가고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박기홍 부의장에게 요청했다.

홍 위원장은 아울러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교육청 및 학교 일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과 민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중간 매개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황규진/기자

영광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안돼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전라남도 정부부지사와 면담 실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점 신청서 제출을 연기해 주십시오.”

지난 4일,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남도청 박창환 정부부지사를 만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송전선로 경과지인 영광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및 영광군 154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따른 영광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면담에는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임영민 의원과 전라남도의회 오미하 의원, 장은영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장영진 위원장은 “정부부지사를 만나 충분한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

하고,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밝히면서, “전라남도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8.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밀접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어 경과지역 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가 11개 읍·면 중 7개 읍·면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신안해상풍력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 회원 80여 명이 전남도청 앞에 모여 김영록 지사의 사죄,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 및 농어촌을 파괴하는 재생에너지사업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원규/기자

봉화군보건소, 새해 건강강증진사업 홍보 캠페인 펼쳐

봉화군보건소는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에 맞춰 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읍면 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홍보 캠페인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 홍보,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운동 상담, 구강관리교육,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 및 예방수칙 등을 홍보한다.

또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클리닉 등록을 유도하고 금연상담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건강증진사업 홍보 캠페인 추진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의회, “학교 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 5년차, 경남교육청 실태조사 필요해”

정규현 도의원, 창원지역 초등 야구부 학부모·지도자 간담회 개최



경남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선도적으로 시도한 학교 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과 관련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현(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무학초, 양덕초, 사파초 야구부 학생 선수 학부모와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소년 야구 발전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형두 국회의원, 조동열 학운위 마산지역협의회장, 전상호 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 전상우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 운동 선수의 잦은 대회출전

에 따른 수업결손, 체육특기자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를 방지하고 엘리트 위주가 아닌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즐기는 운동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초·중학교 운동부를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이중 축구·야구 종목은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도내 초·중학교 12개 야구부는 2020년부터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됐다. 2024년 전환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변화된 체육교육 현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지도자들은 스포츠클럽 전환 이후 자립을 조건으로 교육청이 스포츠클럽에 한시적으로(5년) 지원하는 지원금이 중단될 시기가 2025년에 도래하면서 비용부담과 우수 선수 확보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학교시설물 이용에도 학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와 지도자들은 “스포츠클럽

전환 이후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 야구가 학교교기였던 시기에 비해 스포츠클럽은 학생 선수의 장래를 약속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줄어들면서 유소년 야구의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여기 더해 학생 수 감소로 선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더해 경남교육청이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중단되고, 학교 시설물 사용이 유료화 되면 우수 선수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현 의원은 경남교육청에 스포츠클럽 전환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스포츠클럽 전환 이후 경남교육청은 전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실제 경남교육청이 목표로 했던 스포츠클럽 전환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경남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스포

츠클럽 전환을 시도한 만큼 전환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엘리트 위주의 학교 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의 간격을 흔들 만큼 거대한 의제로,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으나 경남은 다소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 야구의 위기는 중·고교 야구에게까지 여파를 미치고, 이는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마산야구의 명맥을 잇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안길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날 정 의원은 경남교육청에 지원금 중단, 시설 유료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소년 야구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필요한 때다. 관(官)뿐 아니라 기업과 정치권, 창원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NC다이노스 등 민간차원에서라도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장재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부회장: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비전선포식 개최

9일 인재개발원 다산홀서 개최 ... 100여명 참석 새로운 비전, 핵심가치, 전략방향, 전략과제 제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체계를 선보였다.

이날 선포식에서 재단 김혜순 대표이사는 인사말에 이어 새롭게 제정된 비전과 4가지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새롭게 제정된 재단 미션은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이며, 비전은 '일상을 행복하게, 기회를 평등하게,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가족 정책 플랫폼'으로 각각 제정됐다.

재단 전략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선도(전문성), 성평등 가치확산과 폭력 대응 지원체계 강화(상생협력), 가족

친화 문화 및 돌봄 환경 조성(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강화 및 사회적 가치실현(소통혁신)이다.

특히 행사 중 재단 로고 초성을 형상화한 글자(ㄱ, ㅇ, ㄱ, ㅈ)를 4명(재단 대표이사, 노동이사, 근로자위원의장, 노조 지부장)이 하나씩 뽑아 4가지의 핵심가치 메시지를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벌여 재단 비전을 선명화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새롭게 제정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비전,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를 통해 재단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 아파트 재건축 사업관련 정담회 개최

의왕시 아파트 재건축 진행 절차 및 진행 사항 논의

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 인수빌 아파트 주민 3명과 재건축 추진 진행사항 및 진행절차에 대한 민원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팀장 김태호, 주무관 이정숙 주무관과 아파트 주민 3명이 참석하여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원만한 협의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진행사항, 진행절차,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김옥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의왕시 관계부서에 최대한 재건축 사업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논의, 추진, 대응을 하여 줄 것"을 당부 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강태형 경기도의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5일 '경기도의회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날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및 기획전시회가 개최되어 영종현 의장,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공직자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됐다.

강태형 의원은 "오늘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라며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김대중 대

령의 정치 철학과 정신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태형 의원은 제10대, 11대 경기도의원으로 현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총선전략기획단 부단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위원, 의원 연구단체 기획(소득)포럼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 자율방재단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활성화 추진 노력

연천군 자율방재단 단장 및 대표 정담회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7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읍면 대표들과 정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청취 했으며, 경기도 자연재난

과 관계자들에게는 업무 현황을 파악한 후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한다.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박희수)과 읍·면 방재단의 대표들은 윤의원에게 "지역 자율방재단 임무수행 여건과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현안사항 등에 대해 설명" 했다고 한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연천군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대표소개 등에 감사함을 표하며, 경기도 자연재난과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경기도 관련부서에서 조치가능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후 도 관계자와 함께 추가 논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을 주제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을 실시 중이나,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보조금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노후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반적인 시설 및 교육 자재 노후화로 보조견 교육 효율이 저하되어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현재는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시각, 청각, 지체, 치료 도우미견을 훈련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설 환경의 열악으로 인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견 센터' 건립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 2022년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에 따라 '보조견 보급 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으며, ▲ 보조견에 대한 실태조사 ▲ 보조견 보급사업 ▲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센터 지원을 위한 연구에는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 장애인 보조견 센터 건립 타당성 ▲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분석 ▲ 장애인 보조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지원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차질 없는 건립 사업 진행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보조견 보급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소규모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애인 보조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실적은 '22년 12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1년 11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년 13두 분양(시각2두, 청각 7두, 지체 4두)에 그치고 있다.

김범상/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형복지

인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

여주도시공사, '안전과 가치를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주도시공사'라는 비전 아래 공식 출범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지역 균형발전과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8일 출범식을 갖고 '여주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출범식은 8일 오전 10시 30분, 점동면행정복지센터와 여주도시공사 본부 사옥에서 성황리 개최됐으며, 출범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임명진 여주도시공사 사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주시의원, 김병욱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여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점동면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례, 경과보고, 공사미션·비전 선포, 여주도시공사 기(旗) 전달식, 격려사와 축사, 직원 결의식 등 본 행사 후 여주도시공사 본부 사옥으로 이동하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격려사에서 "여주시와 여주도시공사가 합심하면 역세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개발 이익을 우리 지역에 되돌려줌으로써 민선 8기 '행복 도시 희망 여주'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주시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설립등기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기존 공단에서 수행하던 위탁사업에서 나아가 여주시 지역 현안에 맞는 자체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생산성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상/기자



고양시,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플라워 그랑프리' 한국대표 선발전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 플라워 그랑프리 2024 (Goyang Flower Grand Prix) 한국 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국내 화예 작가들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고양 플라워 그랑프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플라워디자인경기대회로 올해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4고양국제꽃박람회'기간 중에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국제플로리스트협회(FLO-RINT)에서 인정받은 공신력 있는 국제 대회이다. 9개국 10명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갖춘 글로벌 화예작가들이 출전하여 디자인, 기술, 창의성을 겨루며 치열한 경합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개최국으로서 2장의 출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선발전을 통해 '고양 플라워 그랑프리'

에 참가할 국가 대표 선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 대표 선발전은 오는 1월 27일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다.



수원특례시, 꼼꼼한 계획으로 도시 발전 이끈다

2024 수원시정 계획 '2' 미래 경쟁력 UP! 지속가능성과 즐거움 UP!

수원특례시가 2024년의 힘찬 첫 출발을 시작했다. 올해 수원시정은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노력을 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부터 탄소중립 노력이 시민의 일상으로 파고들도록 지원하고, 문화와 관광 및 스포츠와 교육 등이 골고루 발전해 시민이 즐거워지는 한 해를 만드는 구상들이 2024 수원시정계획을 가득 채우고 있다.

◇미래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수원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밑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올해 수원시정의 중점 과제 중 하나다. 다양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특히 올해 안에 수립을 완료할 2040 도시기본계획은 6대 중점에 초점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단자족벨트를 구축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또 혁신 교통체계 구축과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 맞춤형 주거 환경을 갖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중심으로 공원과 녹지환경을 다듬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원권공강 이전과 연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고자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구상도 추진한다. 경기 남부 권역 시민과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를 이끌어 간다는 구상이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도 꾀한다. 지난해 말 성곡관대학교와의 협약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첨단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망포지구, 이목지구, 효행지구 등 각 권역별 생활 수준을 높일 거점 개발과 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특화된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

도시 정비 사업도 시민의 의견 반영과 편의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민



이 제안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신규 도입 후보지에 적합한 정비사업 방안을 강구, 정비예정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예정지역의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 상담으로 수요자들의 이해도 높인다. 노후 주택 또는 소규모 노후단지의 환경개선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 에너지 효율과 도시 경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예정이다.

시민 모두가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구의 특성과 주거 실태 및 주거비 부담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주거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만의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 주거복지권 증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복안이다. 가족을 돌보는 공간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개념의 공동체주택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구상 중이다.

◇일상이 되는 탄소중립 실현

환경을 위한 시정도 촘촘하게 펼친다. 이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시민의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원시 환경계획', 탄소중립 환경특례도시 도약하는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기초를 탄탄히 만드는 작업이 우선 추진된다. 또 고색동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도 올해 내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시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자원 순환의 선순환을 촉진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친환경자동차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생활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올해 예상 총량 운영 방안을 제시할 2024 수원 관광정책을 수립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터치수원', 'XR버스 1795행' 등 스마트 관광의 확대를 유도한다. 미디어아트, 야간개장 등 수원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의 축제 자리잡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공간도 더 특별해진다. 박물관은 소장 유물 활용을 높이는 한편 수원의 역사와 지역적 특징을 담은 특별기획전 등을 준비해 품격을 높이고, 비대면 전시관람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 접점을 확대한다. 미술관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복지 실현하는데 앞장 서고, 국제교류전 등으로 예술 소통을 강화한다. 도서관은 돌봄수요가 과밀한 지역에서 돌봄실을 설치하고, 연령대와 주제를 다양화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매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의 즐거움도 풍성해진다.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회들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7개소가 확충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에 활력을 더한다.

교육사업도 특화한다. 수원만의 프로그램 체계구리스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로 만든다. 또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치활동, 진로진학 컨설팅, 도제학교, 사회복지사업, 생존수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 지원사업도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원과 빛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2023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화성시가 '경기도 2023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상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수도 관리 △상수도 운영 △홍보 실적 △노출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실적 △도정 정책 협조 총 5개 분야에 대해 성과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및 관 세척 사업 등 깨끗한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올해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 및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동절기 중단 없는 급수공사' 시행과 지역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지역책임제' 도입 등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 상수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문호 맑은물사업소장은 "상수도 교체 및 신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00만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의정부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경민 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시작!

의정부시는 경민 대학로 주변 골목상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민 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침체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로, 산잡하고 노후화된 간판들을 정비해 밝고 쾌적한 경영환경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가능동 697번지 일원 대상지 내 점포다. 사업을 신청한 점포는 20%의 자부담이 있으나, 상가 내몰림을 방지하고자 상생을 위한 임대인 동의서 제출 시 자부담 비용은 10%로 경감된다. 단, 창업 6개월 이내 점포나 체인점 및 폐업 예정인 업소,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점포는 총 12곳이며, 시는 해당 점포들과 간판 디자인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점포들은 간판 조명 점등 및 소등 시간

에 대한 의무이행을 통해 어두운 골목을 밝힐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의정부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골목상권의 현황 파악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4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용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상인과 주민, 학생 모두 전체적인 상권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찾고 싶은 상권조성을 위해 청년 유입, 체험,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허남준 도시정책과장은 "밝고 오래된 간판을 교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침체되고 있는 골목 상가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권 변화를 위한 과정과 노력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성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에 도·중앙정부 39건 긍정 답변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한 해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에 39건을, 중앙정부에 55건

을 각각 건의했다.

경기도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성남시의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구리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 15건(38%)이 수용,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용인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의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등 24건(43%)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중 성남시가 건의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 가중에 관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

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측은 해당 부처로부터 이러한 긍정 회신율(41%)을 받은 것은 대외 협의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 6월 화성시에서 개최한 3차 정기회의 맨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시·군별 도로·교통 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개의 건의사항을 공식 제출해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회신을 직접 받았다는 이는 사례가 드문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올해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부처 간 가고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군민들의 민생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천시는 지난 2023년 12월 26일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이천시 홈페이지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공고하면서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중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승

강기,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 방수 및 도장 등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과 화재 관련한 사업을 추가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지원 사업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입주주민들이 지난해 보다 서둘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이천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김범상/기자



안산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안산시는 오는 30일 상록구청 상록 시민홀에서 '안산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먹거리 종합계획은 안산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먹거리 관련 공급체계 ▲접근성 확대 ▲품질·안전 관리 ▲폐기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안산시 먹거리에 관심 있는 시민을 초청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먹거리 종합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안산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전문가 연구 및 토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청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용역업체인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먹거리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향후 5년간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번 용역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더 스마트한, 더 편리한, 더 행복한 안양 만들 것"

평촌신도시 재정비·청년 주거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핵심사업 가시화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핵심사업을 가시화하여 더 스마트한 안양, 더 편리한 안양,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올해 안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 이전,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되고, 인덕원 주변 개발과 미래선도 글로벌기업 유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평촌신도시 재정비, 공원 및 문화시설, 청년 정책,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합센터·자율주행버스·인덕원 개발사업 '순항'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4월 동안구청 옆 부지에 새 동지를 틈다. 시의 안전, 교통, 재난재해 등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제탑(컨트롤타워)'인 센터는 시청 7층에서 운영 중이나 시스템 확장성 및 고도화를 위해 신축 이전 한다. 24시간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으로, 홍보체험관을 비롯 가상현실(VR)·확장현실(XR) 체험존, 자율주행차고지 등 시설이 갖춰진다.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올해 3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8월부터 안양시를 누닌다. 동안구청·비산체육공원(주변), 안양역-인덕원역(야간) 등의 2개 노선을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에 운영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한다. 지난해 11월 확장현실(XR)광학자점센터가 안양에 개소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련 기술 혁신과 사

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오는 2028년까지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직식산업센터,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인덕원은 4중 역세권 교통의 핵심인 만큼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고밀 개발의 '압축도시(컴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신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 청사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 시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 직속 기업유치추진단은 올해 기업참여의향 수요조사와 후보명단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업"

이라며 "'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을 원칙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정비신지구는 올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공공주택 및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하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된 안양천에 대해 올해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안양천 곳곳에 단절된 구간을 없애고 구간별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안양역 앞 수

올해는 청년임대주택 238세대를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복지 시설도 크게 확충된다. 만안구에 건설 중인 장애인복지문화관이 올해 2월 완공되며, 하반기에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과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권 분석과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례보증, 이차차액 보전 등의 지원도 계속된다. 아울러 미래교육협력지구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는 위상을 걸맞게 추교교실, 1인 1악기, 코딩 등 학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제·금융 교육을 중학생으로 확대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규제혁신 및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지난해 안양시의 시정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우수한 입지부터 미래까지, 상품성까지 완벽조화 GS건설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 9일 1순위 청약 진행

총 472가구, 지상 최고23층 6개동 전용면적 84~100㎡ 중대형 구성
1월 8일(월) 특별공급, 9일(화) 1순위 청약...전매제한 6개월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로 실 거주 면적 증대 가능, 스카이라운지까지 선봬

GS건설은 용인시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하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 주택을 5일(금) 오픈하고 분양에 돌입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35-2일원에 들어서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23층, 총 472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01가구 ▲84㎡B 109가구 ▲84㎡C 107가구 ▲84㎡D 35가구 ▲100㎡ 20가구로 84㎡ 위주로 구성된다. 청약은 1월 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화) 1순위, 10일(수) 2순위 청약 받는다. 당첨자는 1월 16일(화)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1월 28일(일)~30일(화)까지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이라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

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 우수한 인프라도 자랑한다. 먼저 수인분당선 영통역도량도 이용 가능하며,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용인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동탄인덕원선도 계획되어 있어 교통여건은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1시간 이내에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서울 진입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주변에 다양한 편의 시설도 자리한다.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가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도 가깝다. 또한 서천초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서천중, 서천고, 경희대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도 인접해 교육여건이 좋다. 살구골공원, 반달공원, 영통중앙공원, 수원어린이교통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실내체육공간을 갖춘 망포복합체육센터(계획)이 들어설 예정인 점도 시선을 끈다. 직주근접 입지도 특징이다.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모여 산업벨트가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다양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 등을 적용했다. 또한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주거 선호도는 높으나, 신규 주택 공급이 드물어서 대기 수요가 많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고,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더해져 고객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일대를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위치한다.

김범상/기자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남도, 은퇴 기술인력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 강화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집중 지원' 대상지로 나주시, 해남군, 영암군, 완도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은퇴한 지역 기술인력을 활용해 안전점검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겸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60세 이상 은퇴 기술인력 32명의 인건비 1억 4천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효율적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선정 시군을 방문해 점검인력 교육을 한다.

점검 결과 문제가 큰 시설은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안전점검을 추가로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공모 시 우선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안전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질길 기대한다"며 "은퇴한 기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로당을 비롯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사각지대해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실시

전남 함평군이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3회에 걸쳐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이며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 후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

까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2백만 원씩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하며, 회차별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본 지원사업이 지역의 희망인 청년 부부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나주시,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종합대상' 수상...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한국지역경제학회·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 객관적 통계 연구·분석

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전라남도 일자리·경제활마당 일자리 창출 부문 최우수상에 이은 쾌거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은 지역 주도의 지역 특성화 노력을 격려하고 지자체의 지역경제 행정 성과와 노력을 확산하고자 지난해 첫 시행됐다.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공포된 공식 객관적 통계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

가위원회를 통해 지역경제 실적을 평가했다.

나주시는 지역경제 분야 9개 부문 중 전년 대비 고용률, 취업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평가하는 일자리 창출 부문서 전국 1위에 올랐다.

여기에 인구 대비 사업체·종사자 수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다룬 기업지원 부문에선 2위를 기록, 총점 8975점을 획득하며 종합대상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객관적인 통계 수치 자료만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연구·분석한 평가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성과로 풀이된다.

나주시는 주력산업인 '에너지분야 및

충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지원 정책, 구인·구직 상담과 직업 교육, 취업·알선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힘써왔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일자리 관련 152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구인 926명, 구직 819명, 알선 1227명, 취업 532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 근간인 기업유치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지방이 아닌 수도권을 겨냥한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첫 개최해 4개 기업 투자유치 협약과 300억원

규모 투자금 유치(2건) 성과를 냈다.

올해는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따른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국가산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한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주기업과 종사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며 "문화·지식·벤처·에너지신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나주형 일자리 창출로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기반을 닦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순천시, 더 두텁게 더 섬세하게 시민의 기본생활보장 강화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순천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더 두텁게 지원하여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급여도 상향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최대 14.4% 월 9만원 인상,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이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천원

~27천원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초등학교 461천원, 중학교 654천원, 고등학교 727천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순천시의 촘촘한 생활밀착형 순천형생활안정비, 순천SOS센터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지원 등 순천형 복지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이웃,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진도군,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 '우리동네 영웅들' 2호 영웅 선정

진도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 '우리동네 영웅들' 제2호 영웅을 선정했다.

'우리동네 영웅들'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찾아가 전쟁경험담과 미래세대에 전하는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가유공자와 보존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제2호 영웅으로 문두철(91세, 군내면) 어르신을 선정했다.

문두철 어르신은 1953년 21세의 나이에 징병돼 제주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중부 전선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산 증인이다.

또한 부산에서 반공포로 수용소와 헌병대에서 근무를 하고 휴전이 된 후, 전역해 고향으로 돌아와 거주 중이다.

이번 취재를 통해 문두철 어르신은 "참혹한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이 땅에

그때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이날 진행된 취재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진도군 공식 유튜브 등 동영상 기반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참혹한 전쟁에 젊음을 희생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된 참전용사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동네 영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남원시, 소프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전북SW미래채움"사업 순항, 2년차 사업도 기대

남원시가 SW교육 거점센터 및 체험교육장 구축·운영, SW교육 환경 조성 과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한 '전북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이 1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년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에 시작으로 4월 27일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 ㈜디랩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북 SW 미래채움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년동안 SW 전문 강사 44명을 양성함으로 초·중등학생 SW 교육 4,960명 실시를 필두로 스디지터리더스 클럽 운영(8명) △청년SW개발자 양성과정 운영(28명) △SW미래채움 창작 페스티벌 운영 △SW·AI Challenge 대회 개최 △SW미래채움 청소년 토크콘서트 '슬기로운 코딩생활' 개최 등 소프트웨어(SW) 교육 환경 조성과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 성과에 힘입어 남원시는 올해는 △SW미래채움센터 구축을 통해 거점도시 구축 및 SW인프라 확산 △2track(지역인재, 종합인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 △전북지역민이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행사 추진 △전라북도 교육청 및 SW중심대학 사업단과 협력하여 지역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SW미래채움센터는 올 6월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지역의 초·중등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등 체험공간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SW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2track의 지역인재 및 종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SW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인재 양성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리더스 클럽 운영(20

명), 청년 SW개발자 양성 과정(40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종합인재 양성프로그램으로는 SW 전문강사 양성(90명), 초·중등 SW교육 프로그램(5,000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내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SW미래채움 창작페스티벌은 물론, 올해부터는 타 지역 미래채움센터와 함께 드론코딩 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SW 교육을 진행한 학생들의 성과를 선보이기 위한 SW-AI Challenge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관심을 유도하고 진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지역 연계를 통한 사업진행도 적극 진행할 예정으로 전라북도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초·중등

영재 교육을 지원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SW중심대학인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와 연계하여 SW 해외 봉사단, 국외 협력 코딩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며, 코딩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멘토 제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향상된 2024미래채움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며 "남원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대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남출/기자



치유의 섬 완도군, '웰니스 관광' 책자 발간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지난해 11월 개관함에 따라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한 웰니스 관광지를 소개하는 '완도 웰니스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향후 노화·쇼안·보길, 청산, 금일·금당·생일 등은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완도웰니스' 권역 책자에는 국내 최초로 건립되어 운영 중인 완도해양치유센터의 관광지를 담은 책자를 통해 완도의 곳곳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을 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 해안치유의 숲, 다도해 일출공원, 신지 명사십리 등 주요 웰니스 관광지 14개소에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포인트와 스토리를 담았다.

책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향후 노화·쇼안·보길, 청산, 금일·금당·생일 등은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완도웰니스' 권역 책자에는 국내 최초로 건립되어 운영 중인 완도해양치유센터의 관광지를 담은 책자를 통해 완도의 곳곳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여행을 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강진군, 전통시장 활성화로 '반값 강진 관광' 본격 시동

강진군이 올해 대규모 국·도비 확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로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원년, 본격적인 순항 준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강진읍시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및 '24년도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과 4천 5백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노후화된 강진

읍시장의 화장실, 소화 시설, 휴게공간 등 시설 개선과 건물 도색, 조형물 등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이용객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마케팅 및 홍보, 행정 연계 업무 추진 등을 돕기 위해 시장 업무 전담 인력인 '시장 매니저'를 채용한다.

군은 이들 기반 사업을 통해 (주)더본코리아와 함께 '강진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인' 강진읍시장과 오감통 먹거리 타운을 시작으로, 주병상가 및 강진을

상권 전체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침이다.

여기에 강진 '불금불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병영시장은 면 단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지역 상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병영시장 인근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해, 관광객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원년인 올해, 안내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하는 등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축제 ~ 관광 ~ 경제로 이어지는 지역 상권 살리기 본격 도입할 것"이라며 "500만 관광객 시대를 현실화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전북도, 이차전지 미래 전문인력 양성 본격 추진!

전북도와 군산시,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차전지 셀 제조 및 특성평가 교육”을 운영한다.

본 교육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이며, 이차전지의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제작공정과 평가분석 등 실습 경험을 위한 교육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이차전지 시대와 전북산업의 발전 방향 △이차전지 산업 개론 교육 △이차전지 기술 개론 교육 △분석장비 운용 교육 △코인셀 제조 실습 교육 △파우치셀 제조 실습 교육 등이다.

이차전지 관련 교육은 고등학생, 대

학생, 일반인, 이차전지 기업 재직자 등 이차전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10명~15명 이내의 그룹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북TP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이차전지인력양성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주관하고 있는 전북TP 전북이차전지인력양성센터에서는 이번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특성에 맞는 “이차전지 소재부품 개발 및 가공 교육”,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교육”, “전극 및 배터리 설계 교육” 등

이차전지 관련 전문교육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는 이차전지 관련 교육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입주하는 기업과 전후방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교육생들의 기초 지식 습득과 현장 적응력을 강화해 빠른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태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력의 양성과 공급은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해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에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과 현장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도가 보유한 여러 교육 사업에 더해 국내외 우수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교육 외에도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추진할 예정인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차전지 아카데미 운영,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재직자 역량강화 기술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앞으로 이차전지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진계획인 사업들을 파악하여 이차전지 기업이 공급가능한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생기 넘치는 목포 건설에 앞장선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목포시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는 올 한해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청년 취,창업 지원

지난해 시는 청년 취업,창업지원 사업에 총 15개 사업을 진행하고, 총 50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100개 기업에서 120명의 청년 창업가와 활동가들이 목포시에 정착했다.

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자부담 일부를 포함해 매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사업장 주소가 목포에 있는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및 성장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중 올해도 추진하는 연속사업은 9개 사업으로 68개 기업에서 86명의 창업가와 활동가들에게 인건비와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목포만의 특색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 청년 자립 및 복지지원

시는 또한,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중갯돈) 지원, 목포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 취업을 연계했다.

목포시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한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 목포형 청년특화브랜드 개발 창업 및 기획자 육성지원

이 사업은 순수 100% 시비 사업으로 2022년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5개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4개 브랜드를 개발 창업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신규 브랜드개발 창업지원 10명,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획자 12명을 육성 지원했다.

또한, 창업브랜드 개발자 상호간에 네트워킹을 통해 연결망을 구축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청년들이 목포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됐다.

-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이 사업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인 이상 청년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0개팀 6천5백만원, 2023년에는 13개팀 1억4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한 상호간 홍보와 교류 및 협력의 기회가 됐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목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상반기 중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목포시의 강점인 로컬관광과 수산자원, 식품가공, 미래첨단해양 등 관련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혁신 아이디어 상용화 및 제품화 컨설팅 등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 청년들의 힐링공간 목포 청년쉼터 건립 추진

지역 청년의 자유로운 힐링공간을 마련하고 전시, 공연 등 청년의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장으로 목포 원도심의 이혼동 정면 인근 온금동 3-9번지에 청년쉼터를 건립한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국비 5억원, 시비 12억원 등 총사업비 17억원이 소요된다.

건립사업은 대지 1,053㎡ 연면적 299㎡ 규모의 2층 건물로 청년카페, 전시공간, 독서공간, 공유주방, 공연장, 야외테라스 등 청년 힐링을 위한 알찬 공간들로 구성되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남도 문화재심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설기술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1월 착공, 6월 준공예정이다.

목포청년쉼터의 건립은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 운영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청년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시는 목포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대양산업단지의 실질적인 분업 완료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 지속적인 산업단지 입주문의 그리고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목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 스마트그린 산단은 산단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의 소비, 공급,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에너지통합 플랫폼과 디지털트윈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산단 운영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한다.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스마트 교통서비스(스마트 가로등,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 주차장, 대기질 알람신호, 개인용 모빌리티 전용도로 등의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쳤고 총면적 약 18만평과 청년을 위한 임대용지 2만평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전남도, 무안군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발판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해 2027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전담도의 승인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설계를 2028년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시 일자리창출 효과는 7,299명, 순현재가치(NPV) 4358억9천만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정책에 대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최첨단 디지털 산업 육성으로 젊은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젊은 경제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2024년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호응 속 시작

말로 뛰는 열정으로 ... 김철우 군수 색다른 군민과의 대화 ‘눈길’



보성군은 지난 8일 김철우 군수가 벌교읍 채동선음악당과 조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읍면 단위로 열리는 ‘2024년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기존 형식을 수정 보완해 군민과 깊은 공감과 소통

이 가능하도록 읍·면 간의 사향을 사전에 신청받아 개인적 애로사항 건의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이나 읍면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김철우 군수가 민선 8기 비전을 직접 설명한 영상을 통해 주요 업무 성과, 2024년도 부서별 현안, 군정 운

영 방향 등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생동감이 넘친 데다 김 군수가 대화를 주도해 자연스럽게 분위기 속에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2024년에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멋진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군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8일 벌교읍, 조성면, ▲9일 득량면, 회천면, ▲10일 복내면, 문덕면, ▲11일 겸백면, 울어면, ▲12일 미력면, 노동면, ▲15일 웅치면, 보성읍으로 순으로 12개 읍면 순회 ‘2024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최원영/기자

구례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연계 지원”

전남 구례군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복지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겨울철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파 위기가구 ▲고립 위험이 높은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군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례군 복지위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읍·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인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재까지 55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군은 겨울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지원을 검토하고 이후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복지기동대, 협의체의 사례 회의를 통해 생계·의료·주거 등 개별가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전라남도 위기가구 콜센터구례군청 희망복지지원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겨울철 소외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장흥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성료

장흥군은 최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선정된 3개 지구(4개 마을)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마쳤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표지수치화)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여 관산 삼산, 관산 옥담(옥촌), 회진 신상

(4개 마을, 2,105필지, 932,850㎡) 3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도 제출도 받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편의 향상과 토지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신안군, 새해 건강과 행복을 걸어라!



신안군은 지난 5일 팔금면에서 군민 100여 명이 참여한 신년맞이 걷기대회 행사와

연계하여 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신년을 맞아 군

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어, 보건소 전담 인력의 지도하에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했다.

건강증진 홍보관에서는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홍보 △스워크온 앱 설치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현재 보광동 일원에 조성 중인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4층 규모로 올해 9월 개관 예정이다.

이 공간은 공유사무실,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한 실내구조를 갖춰 목포만의 특색있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이 되어줄 전망이다.

- 창업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지역 사회 연결망 구축

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유관기관들과 연결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업자를 지원해 왔다.

4년 연속 고용노동부 선정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 1천만원(국비 7억5300만원, 시비 5700만원)으로 진행되는데, 국비지원이 90%이상 차지한다.

이 사업은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목포시가 선정되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한 해 150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유관기관과 관내 중소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대양산단 내에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민선 8기 핵심공약 사항인 지식산업센터는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에서 양성될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저렴한 기업입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입주공간과 회의실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894㎡ 규모로 국비 16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6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후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지난해 12월 일반설계공모 심사위원회회를 개최해 당선작 1점 및 입상작 4점을 선정했다.

올해는 국비 1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경북도,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초청 '인재 양성 캠프' 운영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 10명, 7일간 안동 임청각 등 독립운동 현장 방문



경북도는 1월 8일부터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차세대 인재 양성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인재 양성 캠프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이 맡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연해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을 펼친 김경천 장군 증손녀 허예바(KHE YEVA, 16세)양 등 청소년 10명이 초청됐다.

방문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고려인뿌리교육센터(교장 이영우)의 추천을 받은 고려인 3세들로 오는

14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임청각,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경북과 서울지역의 독립운동 현장을 찾은 예정이다.

첫날인 8일 환영식에는 이진원 경북도 외교통상과장,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이병철 광복회 경북지부장, 내야마을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참석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맞이했다.

경북도는 이번 캠프 일정에서 고려인 3세 청소년들에게 체류·정착 안내, 비자 설명회와 유학설명회, 그리고 대학교 탐방을 준비해 대한민국 유학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또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함으로써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진원 외교통상과장은 환영식에서 "이번 행사는 특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많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대상 지역을 넓혀나가고 나아가 경북의 대학에 유학하고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다함께 즐기는 스포츠도시 안동! 시민중심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 제공

2023년, 안동시는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스포츠관광 마케팅을 통하여 안동을 새로운 스포츠도시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안동시는 지난 9월 옥동 일원(1381-15번지) 옥수교 동단에 18층 규모의 옥동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클럽이나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연회비 5만 원(월 5,000원)으로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에는 안동반다비체육센터와 안동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안동반다비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들에게 균형적인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조화로 체육 저변 확대

안동시는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회 축전 개최를 통해 안동시민 및 출향인들이 참가하여 체육으로 시민들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고, 15개 종목 20개 강좌의 생활체육교실과 10개 종목의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4,000여 명에게 스포츠장차 이용권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등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생활체육과 함께 올 한해 안동시 엘리트 체육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시부 4위의 성적을 달성했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 7, 은 11, 동 14개를 획득하며 경상북도가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23년, 안동시는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스포츠관광 마케팅을 통하여 안동을 새로운 스포츠도시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안동시는 지난 9월 옥동 일원(1381-15번지) 옥수교 동단에 18층 규모의 옥동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클럽이나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연회비 5만 원(월 5,000원)으로 누구나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에는 안동반다비체육센터와 안동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안동반다비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들에게 균형적인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조화로 체육 저변 확대

안동시는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회 축전 개최를 통해 안동시민 및 출향인들이 참가하여 체육으로 시민들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고, 15개 종목 20개 강좌의 생활체육교실과 10개 종목의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4,000여 명에게 스포츠장차 이용권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등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생활체육과 함께 올 한해 안동시 엘리트 체육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시부 4위의 성적을 달성했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 7, 은 11, 동 14개를 획득하며 경상북도가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윤근수/기자

해운대 온천시설, 부산 최초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

해운대 '클럽디 오아시스' 온천시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심사 통과해 부산시 제1호 보양온천으로 지정

부산시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온천시설인 '클럽디 오아시스'를 부산 최초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양온천'이란 온천수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해 온천을 통한 건강증진 및 심신 양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온천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온천을 말한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되려면, 온천수의 온도가 35℃ 이상이거나, 25℃ 이상인 경우에는 유황·탄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 또는 고용물질을 1,000mg/l 이상 함유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엄격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클럽디 오아시스' 온천시설은 지난

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해 보양온천 지정 자격을 갖추게 됐고, 이번에 부산시 제1호 보양온천으로 지정됨으로써 해운대 주변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국내 고품격 온천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부산 제1호 보양온천이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해운대가 사계절 볼거리·즐거거리로 넘치는 전국 최고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온천시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지속적인 연관산업 발굴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의 新한류 바람, 한복근무복을 입다

문화해설사 등 현대화된 한복근무복 입고 외래 관광객 확대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관광자원 안내와 문화해설 담당 실무 종사자의 근무복을 개선하고 관광접점에서 해외 관광객 확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한복근무복을 개발했다.

진흥원은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복 근무복 개발 공모 사업'을 전국에 공모했고, 전통한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품격 있는 디자인과 관광종사자의 근무 특성에

맞는 활동성과 계절적 기능성을 고려해 우수한 한복근무복을 선정했다.

특히 글로벌 도시 대구의 문양(패턴, 소품, 자수, 매듭)을 개발, 한복근무복에 적용해 한국 전통 복식 문화와 우수한 문화예술 가치를 지닌 대구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달한다.

선정된 한복근무복은 대구 대표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직접 대면하는 관광안내원, 문화관광해설사, 전시 및 문화

예술 안내원, 대구시티투어 기사 등 총 300여 명 관광실무자에게 제공되며,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오는 봄부터 산뜻한 한복근무복을 마주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회 최미란 해설사는 "최근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까지 대구의 모든 문화관광해설사가 같은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대구에 소속된 문화관광해설사로서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됐으며, 보

다 나은 해설 서비스로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이번 한복 근무복 개발 사업으로 문화예술이 우수한 도시 대구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류 문화를 확산하고 선도할 수 있는 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윤근수/기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청송군지회, 올해도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청송군은 갑진년 새해 1월 3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청송군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차 청송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에 써달라며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 142만원을 기탁했다는 갑진 소식을 알렸다.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평생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청송군지회 회원들

의 뜻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고, 청송군의 미래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국가수호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청송군지회 회원들은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미래 100년 대계 초석 다지겠다"

올해 관광객 5천만 시대 열어, 중심상권 사업 등으로 도심경제 활성화 박차

주낙영 경주시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9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정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주요성과, 올해 주요 핵심비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SMR국가산단 유치, 중수로 해체기술원 착공,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 가공센터 및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준공, 대릉원 무료 개방 등을 지난해 핵심 성과로 꼽았다.

또 농촌협약(656억), 동남권 해양 레저관광 거점 조성(490억), 어촌 신활력 증진(100억), 국민체육센터 건립(169억) 등 공모사업 총 35건 선정, 5732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매니페스토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행정안전부 다산공민대상 수상 등 총 75개 수상으로 외부 평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성과에 이어 주낙영 시장은 새해 주요 시정 방향을 소개하며, 경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최대 역점과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라며,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경주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지난해 본예산 1조 8450억 원에서 550억 증가한 1조 9,000억 원의 본예산을 올해 편성해 미래 준비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제2동공원,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 조성 등으로 현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 추진과 경주형 e-커머스 활성화로 도심 경제를 부활시키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확대 추진으로 청년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동남권 해양

레저관광 거점단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축수산업에 신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물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AI·IoT 기반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행복추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는 지난해 SMR 국가 산단 유치에 이어 2025 APEC 정상회의도 반드시 유치해 세계 속의 경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경주의 희망찬 미래를 담당하게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영양군 보건소, 찾아가는 경로당 통합건강교실 운영



영양군 보건소는 겨울철 농한기에 주민의 공동생활 중심인 읍·면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예방

방과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마을회관 통합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최근 3년간 걷기 실천율, 금연 시도율, 점심 식후 칫솔질 등 건강행태가 떨어진 지표가 있어 연초 마을회관 통합건강 교실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실천 행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1개소당 4주 차 교육으로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및 개인 상담 ▲기초질환조사(치매, 우울증) ▲만성질환 교육(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 예방관리, 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구강 등) ▲홍보(각종 보건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올해로 10년째 실시하고 있는 마을회관 통합건강교실은 영양군 내 위치한 모든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주민에게 건강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체 개발한 교육자료로 4주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이후 떨어진 건강지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강교육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능력 향상에 보건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배진태 봉화부군수, 읍면 초도순방 나서

봉화군 신임 배진태 부군수가 8일부터 10일까지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개 읍면 초도순방을 실시한다.

지난 1일 취임한 배 부군수는 8일 봉성면을 시작으로 명호면, 재산면을 방문해 읍면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방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며 묵묵히 애쓰는 읍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민원인들에게 친절

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9일은 석포면, 소천면, 춘양면, 법전면, 10일은 물야면, 봉화읍, 상운면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배진태 봉화부군수는 “원활한 일선 지방행정 수행과 능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 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건설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부군수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 2024년 신년교례회 개최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월 5일 11시, 문경관광호텔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황재용 시의회의장, 박영서 경상북도의회수석부의장, 시도의원, 관내 여성계 인사, 18개 여성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 사업성과 보고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각 여성단체에서 추진한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문경 여성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단체 사업성과 보고, 새해 인사, 축하, 신년 축하 퍼포먼스 및 시루떡 절단 등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 각 여성단체 회원들의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도 이뤄졌다.

박영선 여회회장은 새해 인사를 통

해 “지난해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사를 전하며, 2024년에도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문경 여성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주관 단체인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총 18개 단체로 7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지역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김동현/기자



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실시

의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달부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에서 사진 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 단축을 위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입국하기 시작하는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비자유형에 따라 일부상이한데 MOU(E-8-1, C-4-1)는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숙소점검확인서(농어업 종사 이력 입증서류 등)이며 결혼이민자신청 초청(E-8-2, C-4-2)은 여권사본, 결혼이민자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척관계도 등이 있으며 이를 비자포탈 내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된다.

군은 지역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2019. 4.), 필리핀(2022. 10.)과 MOU를 맺고,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을 초청하여 일손을 돕는 등 농촌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수요능가가 매년 증가했으며 군은 법무부에 2024년 상반기 배정인원을 전년 대비 75% 증가한 448명을 확정받았으며 이들은 오는 3월부터 관내에 들어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덕분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농번기 시작에 앞서 적기에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3월 20일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267회에 걸쳐 3만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매년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 새롭게 바뀌는 농업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농기술과 품종소개 등을 통해 그 해 영농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 시군의 주요 작목과 새로운 소득작물 등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교육 일정과 교과과정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청룡의해 농사 준비는 지금부터!

2024 경북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지역별 특화작목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 과수농가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한 화상병에 대한 예방과 방제요령, 토양 환개 관리, 아열대 작물 등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한 대비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농업대전환, 농업기술 연구성과, 새롭게 개발된 품종, 화상병 확산 차단 실천 사항, 농업인 안전 예방 가이드 등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제작한 부교재를 농업인에게 최신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교육 진행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별 주요 교육장에 대한 현장 모

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업인과 교육 진행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국제정세 변화와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려면 농업인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일정과 교육과정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원격협진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앞장’

3년간 2300여 건 서비스 제공...‘건강형평성’ 확보



경북 영주시가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영주 적십자병원과 원격협진 협약(MOU)을 맺고, 13개 보건진료소와 함께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원격협진을 시작했다.

협진은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의 혈압 및 혈당 등 기초검사 측정 후 진료 프로그램에 측정결과와 특이사항을 입력

하면 전문가가 이를 토대로 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가 끝나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전문의약품을 보건진료소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또, 연 2회 적십자병원에 직접 찾아가 받는 합병증 검사도 영주시가 교통편과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300여건이 넘는 원

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한 영주시는 지난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원격협진 사업 홍보를 강화해 신규 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협력해 건강 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예천군! 신도시 연결도로 감응신호체계 구축 완료

스마트한 신호체계 운영으로 교통 흐름 획기적 개선

예천군은 지난해 신도시 연결도로 교차로에 감응신호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총 13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감응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영상으로 감지하여 상황에 맞는 신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스마트한 신호체계이다.

신도시 연결도로의 경우 직진 방향 통행량이 많고, 좌회전 및 보행자 통행량은 적어 정기적인 신호체계를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좌회전 및 보행신호로 인해 통행량이 많은 직진 차량의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천군은 2022년 신도시 연결도로 4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를 도입하여 교통흐름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지난해 9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를 추가 구축하여 신도시 연결도로의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감응신호 도입으로 예천읍 ~ 신도시 간 출퇴근 시간이 5분 가량 단축됐으며, 예천읍 부터 신도시 부터 지보면 어신리로 이어지는 신도시 연결도로 전체 차량 흐름이 좋아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였다.

신도시에서 예천읍으로 통근하는 이모(32세) 씨와 신도시에서 지보면으로 통근하는 정 모 씨(46세)는 “차가 없는 교차로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던 시간이 줄어들어 기분 좋게 출퇴근 할 수 있다.”며 감응신호체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예천군은 올해 국도 34호선 내 교차로(비행장, 장승리)에 감응신호체계 도입을 위한 국비 3억원을 확보했으며, 신도시 연결도로 갈등교차로에 감응신호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안전



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속도 내다 친환경활력센터 12월까지 조성



울진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인 '친환경활력센터'를 2023년 12월 22일 착공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친환경활력센터 구축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구성원인 액션그룹의 활동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울진 왕피천공원 내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153㎡, 건축면적 603㎡ 규모로, 체험공간, 공유주방, 다목적홀, 스튜디오 등을 조성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친환경공동체를 통한 활력 넘치는 울진'이라는 비전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70억원(국비49, 군비 21)을 투입하여 친환경공동체 인재양성,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

어넣는 자립형 혁신거점 육성 전략사업이다.

손복욱 울진군수는 “친환경활력센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활동거점이 될 수 있는 친환경공동체 활동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영덕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



영덕군은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긴급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전국에서 연간 10만 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중요도에 비해 여전히 인지도와 이용 빈도가 낮아 대안이 필요했다.

이에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에 부합하는 '109'로 번호를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소중한 인명을 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는 '1' 한 명의 생명도, '0' 자살 없이, '9' 구하는 자와 함께 널리 알려진 응급구조번호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

황임을 시사한다.

영덕군은 앞으로 '109' 상담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출동을 비롯한 체계적인 자살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해 문자나 메신저 등 SNS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윤사원 센터장은 “일상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닥쳤을 때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09'를 기억하고 꼭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삶에 희망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2024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 개최

청룡의 기운으로 '여성이 만드는 새로운 경북시대'를 위한 새해 다짐



아 보고 새해 인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새해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등 도립국악단의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새해인사, 경북여성 단체 활동영상물 상영, 축하공연, 시루떡 자르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애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는 마스크를 쓰고 신년교례회를 열었는데 올해 마스크를 벗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년교례회를 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북 여성의 단합된 힘을

모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국내외 교류 활동, 양성평등 활동 및 지역의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4년은 도민이 행복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여성이 만드는 기회 새로운 경북시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노고 덕분에 지난해 최고의 성과인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정부의 글로벌 대학 전국 최다 선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등 많은 성과가 있

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올해는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지난해 성과를 거둔 투자유치와 특화단지 등을 민간의 대규모 투자로 구체화하고, 교육혁신과 인재에 대한 투자로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위한 교통체계 혁신과 여성의 출산과 육아, 돌봄 문제를 해결하여 '경북에 사니까, 참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북여성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낳으면 키워주는 육아·돌봄 등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 경북여성의 힘으로 초저출산시대를 극복하자"고 여성지도자들과 함께 다짐했다.

한편,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23개 도단위 회원단체와 22개 시군단체로 구성돼 있는 경북 최대 여성단체협의체다.

1980년 창립된 이후 여성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27만여 명의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준비 체제 본격 돌입!

청송군은 '2024 노스페이스컵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및 청송 ICE CLIMBING FESTIVAL'이 지난 6일부터 7일 성황리에 종료됐으며, 다가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제산악연맹(UIAA),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청송군·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국립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리드 및 스피드 부분으로 구분되어 진행하며 12일 개최를 시작으로 13일에는 리드예선과 남·여 스피드 예선·결선, 대회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남·여 리드 준결선과 결승,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세계랭킹 남자 1위 Mohsen BEHESHTI RAD(이란)

와 여자 1위인 Vivien LABARILE(스위스), 리드 세계랭킹 여자 2위 Sina GOETZ(스위스), 남자 3위 Benjamin BOSSHARD(스위스) 등 세계 최정상급 아이스클라이머들이 참여하며 양명욱(스피드, 세계랭킹 2위), 신운선(리드, 세계랭킹 3위) 등 25명의 국내 최정상급 선수를 포함한 16개국 110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여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대회장에는 청송백자전시 및 관광사진전, 청송 사과무로 시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장 뒤 얼음빙벽이 조성되어 있어 청송 얼음공 전철의 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11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자연경관과 스포츠중

목을 연계한 종목 특화로 국제대회 브랜드화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며 "그간 진행해온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선수와 관중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2024년 달라지는 지역화폐 동백전 혜택, 아는 만큼 이용해요!

월 30만 원 한도, 캐시백 5% 유지(연 매출 30억 원 이하)

부산시는 2024년 올해 더욱 다양한 혜택이 담긴 정책으로 지역화폐 동백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난 2022년 8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월 30만 원 한도, 5% 캐시백 정책(연 매출 30억 원 이하)을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국비가 교부되면, 교부 조건에 맞춰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에게 즉시 혜택을 돌려줄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에서 동백전을 사용하면 2% 더해진 7%의 캐시백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국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아 당분간 5%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두 번째로, 기존 가맹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추가 캐시백 요율을 기존 2%에서 3%로 1%p 상향한다.

동백플러스 가맹점 제도는 동백전 쿠폰(QR) 결제 시 가맹점이 3~10% 자체 할인을, 시는 기본 캐시백뿐 아니라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캐시백 상향으로 결제액의 최대 18%(최대 10% 할인 + 5% 기본 캐시백 + 3% 추가 캐시백)의 할인과 캐시백 효과를 볼 수 있다.

동백플러스 가맹점 현황은 동백전 앱에서 '동백+' 탭을 선택하면 되며, 이곳에서 내주변 위치기반 지도정보와 목록, 할인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동백플러스 가맹점 제도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동백플러스 너도나도 이벤트를 상시 운영한다.

이 이벤트는 본인이 추천한 가맹점이 동백플러스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추천인에게 가맹점당 2만 원을 지원하고, 동백플러스 가맹점에게는 가입일 기준 다음 달까지 발생한 자체 할인액 부담분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동의대학교 의리단길 상점가가 동백플러스 특화거리로 지정되는 등 동백플러스 가맹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상시 운영을 통해 지난 해 1천개 목표 달성에 이어 올해는 2천 곳까지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동백전을 통해 연말연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기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시범실시한 동백전사 제도를 상설 운영한다.

동백전사 제도는 동백전으로 5만 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최대 2만 원(5~10만 원은 1만 원, 10만 원 이상은 2만 원)의 지역화폐 정책지원금을 제공하고, 우수 기부자를 동백전앱(동백드림)을 통해 이달의 동백전사로 홍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전에는 기부 사연별 모금액은 50만 원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20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한편, 시는 동백전사가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쿠폰(QR) 결제 시 더 많은 추가 캐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백플러스 가맹점과 동백전사 이용빈도를 높여 소상공인지원과 소비자혜택, 기부문화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섯 번째로, 동백전 쿠폰(QR) 원격 결제 도입 등 동백전 결제가 더욱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외부에 설치된 쿠폰(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쿠폰(QR)코드를 불러와 원격 결제할 수 있으며, 또한 한번 쿠폰(QR) 결제한 가맹점의 경우 기존 결제내역을 통해 원격으로 재결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원비 결제를 위해 자녀가 부모의 동백전 카드를 가지고 학원에서 결제할 필요 없이, 쿠폰(QR) 불러오기나 재결제 방식으로 부모가 집에서 원격으로 결제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올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게 됐다"라며,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고, 더욱 혜택이 늘어난 동백플러스 가맹점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서울 영양학사, 2024년도 입사생 모집



영양군은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영양 출신이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학사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2024년 선발인원은 총 22명(여학생 11명, 남학생 11명)으로 지원자격은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5년 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50(석관동)에 위치한 영양학사는 군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사로 및 사용

료 부과 없이 입사생이 사용한 공과금(상하수도요금 등)만 납부하면 된다.

희망자는 영양군청 자체행정으로 방문접수하거나 전자우편,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업성적, 소득수준 등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학업을 위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영양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시민과 함께 미래100년 명품도시, 대한민국 섬 특별시 통영"

통영시는 지난 5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 2035년까지 통영의 미래비전 용역 성과물에 대한 최종보고와 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중간 보고회는 천영기 통영시장, 시의회의원, 국·소장, 출자출연기관장, 전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용역 시행사인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의 최종보고 후 용역 마무리를 위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최학수 책임연구원이 맡았으며, 그 간 각종 고회 및 개별 인터뷰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 결과보고, 통영의 미래전략 및 비전 제시, 부문별 목표 및 핵심사업 제시, 통영시 미래비전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보고 후 질의응답, 의견제시를 통하여 마지막 까지 보완해야 할 사항과 향후 최종보고서 납품까지 점검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는 2035년 까지의 통영 미래비전을 "시민과 함께 미래100년, 명품도시, 대한민국 섬 특별시 통영"으로 정하고, "활력있는 미래 해양산업 선도도시", "남해안권 최고의 글로벌 그린오션 및 다이내믹 해양 섬 관광지 육성", "미래 친환경 기반 조성으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정정한 바다와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균형발전도시 완성", "전 세대 행복한 건강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교통·정보통신 체계 완성", "미래창의·융합 인재육성과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 생활체육", "시민과 소통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부문별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핵심사업 46개, 전략사업 61개, 연계사업 5개 등 총 112개 사업을 최종 제안하였고, 총 사업비는 5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총평을 통해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착수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 최종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며 "연구원에서

는 오늘 나온 의견들에 대하여 마지막 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완하고, 전 부서에서는 금번 수립된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당장 추진할 사업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 구분 등 옥석을 가려내며 동시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절차탁마하여 통영이 미래100년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후 최종 보고서를 1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이후 핵심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윤준/기자

포항시 지난해 관광객 750만 명 돌파! 역대 최대 방문객 기록

스페이스워크, 드라마 촬영지 등 포항의 명소 관광객 증가 견인

포항시는 지난 2023년 포항을 찾은 관광객이 759만5,02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628만4,929명보다 131만여 명 늘어나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관광객 통계 자료는 스페이스워크를 비롯한 포항시 주요관광지 22개 지점의 입장권 판매현황과 무인계측기 등의 자료로 조사됐다.

포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19년 '포항방문의 해'를 맞아 사상 처음으로 7백만 명을 돌파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세를 그려왔으나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신규 관광지 개발과 드라마,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포항 관광지의 지속적인 노출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해 지

난해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른 포항시에 대한 SNS 언급량도 전년 대비 51%가 증가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자리 잡은 스페이스워크는 지난 2021년 11월 개장한 이후 23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포항 필수 여행코스 자리 잡으며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난해 '2023 한국 관광의 별' 신규관광지 분야와 '대한민국 밤관광 100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스페이스워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촬영지도 방문객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백꽃 필 무렵'의 구룡포읍, '갯마을 차차차'의 청하면, '이 연애는 불가항력'의 도심권(철길숲, 영일대 장미원 등)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윤태용/기자



대구시 뇌질환 진단이 가능한 조영제 개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글루타티온 타겟으로 하는 MRI조영제 개발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루타티온을 타겟으로 하는 MRI 조영제를 개발했고, 관련 발명을 PCT(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했다.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는 뇌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조영제를 개발했다.

해당 조영제를 사용하면 MRI를 통해 글루타티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비침습적으로 뇌질환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에 개발된 조영제를 전임상과 임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활용 가능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

윤근수/기자

해당 출원은 케이메디허브 김희경 선임연구원(전임상센터 생체영상팀)을 주축으로 정희수 선임연구원, 신창훈 연구원, 김동선 연구원(전임상센터 생체영상팀), 권태준 선임연구원(전임상센터 융복합평가팀)이 함께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2023년 11월 29일자에 글루타티온 감응형 신규화합물 및 이의 의학적 용도라는 명칭으로 PCT 출원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비침습적 영상 진단 기술은 임상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새롭게 개발된 조영제가 타겟 물질과 관련된 많은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실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는 특별신용보증 추천

은평구는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업체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간, 숙박·음식점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 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용자를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올해 용자 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이며, 용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운영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먼저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을 통해 담보 평가를 거친 후,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숙박·음식점업 및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에서 최대 5천만 원(별도 심사 시 2억 원) 한도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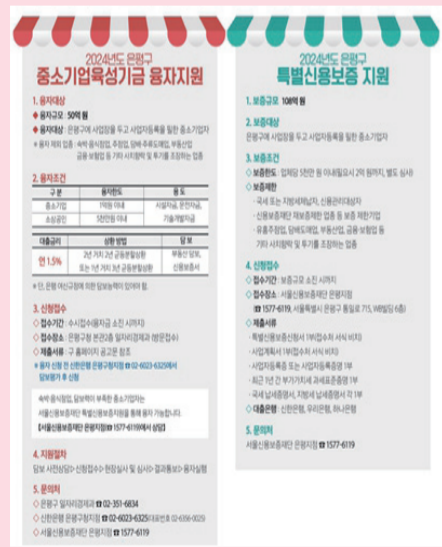
'특별신용보증'은 은평구와 시중은행이 출연한 재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에서 용자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용자 지원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영등포구, 다자녀 출산가구 300만원 지원 ... 함께 키워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확대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금액 확대 지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 다자녀 출산 가구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첫만남 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일시금이 지급되며 유흥업소,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당초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 원씩 균등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으로 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영아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한 부모급여의 지원금도 올해부터 0세 아동(0개월부터 11개월)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아동(12개월부터 23개월)은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증액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외에, 구 주민들의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산모 산후조리경

비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찾아가는 행복수유사업, ▲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시간·영아중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아기 건강 첫걸음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출산·육아에 대한 어려움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박학신/기자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이용(국민행복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첫돌 건일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급여

- 지원대상: 0-24개월 미만 아동 (2022.1.1 이후 출생아)
- 지원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 지원금액: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 0세 아동 중 보육료 수급 아동은 차액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룡의 해,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다! 2024년 성동구 신년인사회 개최

오는 10일 오후 2시 소월아트홀에서 새해맞이 신년인사회 열려



서울 성동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는 10일 오후 2시 소월아트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지역 인사와 구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신년회에서는 2024년 승천하는 청룡의 힘찬 기운처럼, 더 크게 도약할 성동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의 전 과정은 성동구청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장소에 구애 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이 새해맞이 환영 인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면, 생활예술동호회의 기타 앙상블과 오카리나 공연, 구립합악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등 새해를 함께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구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 편지 소개와 더불어 구청장 신년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정원오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이끌 구청 비전과 역점

사업을 발표한다. 성동구가 최근 서울 부천으로 새롭게 등극하는 등 높은 성장세 속에서도 포용 정책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널리 보듬어 가는 한편,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스마트용 도시 구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다 견고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생활 밀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 행정,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4대 도약 4대 중심 프로젝트를 더욱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을 포함해 성동형 일상 생활권 구축을 비롯한 구청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일터, 삶터, 쉼터가 고루 발전하는 성동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시니어합창단의 합동 공연과 어린이발레단 공연과 연계한 청룡 퍼포먼스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신년인사회를 앞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는 포용의 가치를 넓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외롭지 않은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와 여가, 돌봄, 공공서비스 등 생활의 필수 기능들을 보다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성동형 일상생활권'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새해를 맞이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일상의 행복과 감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된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강남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모기유충 퇴치 나섰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방문 컨설팅 및 기술 지원해 모기 방역 수준 향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퇴치 컨설팅을 시작한다.

지난해 1,826건의 방역 민원 중 약 70%(1,300건)가 모기 방역 민원으로, 구는 지금까지 모기 유충을 선제적으로 방역하기 위해 공원과 주택 정화조 전수 방역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모기로 인한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발 더 앞서 나가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독의무시설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을 나섰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300세대 이

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울시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0개 단지(5만 5000여세대)에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방문해 효과적인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 각 단지별 정화조, 집수정, 하수구 등을 함께 점검하며 모기 유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정화조에 구제제를 투입하는 방식 기술 등을 교육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소독 시설 법적 기준을 준수한 아파트 단지는 우수 아파트 단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00세대 미만 주택의 정화조 방역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정화조 청소

와 모기 유충 방역을 구청의 자원순환과와 질병관리과에서 별도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스톱 방식을 도입했다. 청소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후 바로 모기 유충 구제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뀐 인건비와 시간을 절감한다.

또한 개별 주택에 모기 유충 구제제를 직접 지원한다.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주택에는 시설 관리인 및 개별 세대에 약품을 직접 배부하고, 150세대 미만의 개별 주택은 동 주민센터에서 약품을 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공동주택 모기 퇴치 컨설팅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방역 수준을 높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빈틈없

고 선제적인 모기 방역 체계를 통해 구민 불편을 줄이고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서대문구,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급식 단가 인상

4,000원에서 5,500원으로..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밀반찬배달에 모두 적용

서대문구가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급식 단가를 올해 들어 기존 4,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에 따른 기본 급식단가 외에 구비 1,500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는 관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인왕어르신복지센터 등 8개 기관을 통해 모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밀반찬배달 등 3개 사업을 수행한다.

경로식당은 점심을 제공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식을 추가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는 도시락과 밀반찬을 배달한다.

이번 인상은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밀반찬배달에 모두 적용된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더욱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급식 단가를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임종득 前 대통령실 안보실2차장 '원칙너머'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개최돼

임종득 영양·영주·봉화.(울진?)국회의원에비후보는 지난 8일 14시, 영주시 그랜드 컨벤션 5층에서 권영진 前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내외빈들과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 주요 내빈을 및 지지자 1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두 번째 저서 전'원칙너머' 출판 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92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서 새로운 혁신의 기운을 듬뿍 담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행사는 김성. 박소영의 사회로 제1부 축하공연, 제2부 출판기념회 행사 순으로 진행돼, 제1부 축하공연에서는 영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로 섹스폰연주, 통기타 지역가수 공연, 트럼펫 연주, 시낭송으로 한껏 행사장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후 14시, 제2부 본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참석내외빈 소개, 내빈

축사, 저자 임종득 前 대통령실 안보실2차장 인사말과 저서 소개, 국가를 위해 해야할 소명감 등을 포함한 축하의 변을 밝힌 후, 이어 나경원 前 국민의힘 대표 등 외빈들의 축전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권영진 前 대구시장을 비롯한 몇몇분의 축사에서 "영주시는 이번 기회에 임종득 前 대통령실 안보실2차장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 주어 영주의 자존심을 기필코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너머'의 저자 임종득 前 대통령실 안보실2차장은 사회자의 소개에 참석한 분들에게 큰 절을 올린 후, 원고없이 당당하게 저서를 소개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정치권에 발을 디딘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인맥으로 우리 지역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다"면

서 "베어링 국가산단 조기 추진, 원도심 상권회복, 동서 5축 철도건설 조기 착공, 지속 가능관광사업 구축, 방위산업과 사이버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마이스 산업 육성 등 공약사항을 밝히면서, 기획·전략통달자, 지역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책임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참석한 모든 분들로부터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원칙너머'는 앞서 그가 쓴 '약함 너머'의 후속저서전으로 그가 38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세웠던 원칙을 기록한 영주 미래 전략론으로 방산 수출산업, 사이버 안보 정책과 그의 개인사, 등 비하인드 스토리와 정치를 하려는 이유 등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J오(남, △△대표)씨는 "영주시에서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지지자가 몰리다니 참으로 놀랍고 그의 자신에 찬 찬출마의 변을 들으면서

역시 대한민국 장군답다"면서 "이 나라의 안보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장군출신이 현정부의 안보실 2차장을 역임한 힘있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이 작금의 안보부재의 대한민국 현실에 꼭 필요하다"

면서 "영주시 인구가 지역구의 52~3%나 차지하는데, 우리 영주시가 이번에는 기필코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힘줘 말해 지난 21대 선거때와는 확연히 다른 영주시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원칙너머'의 출판기념회 저자 임종득은 이곳 영주시 이산면 운문리 출신으로 영주 운문초, 영광중, 대구 청구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을 역임한 전략 및 기획통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시 국방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을 맡으면서 윤 정부 초기외교안보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타가 공인하는 막강파워맨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지난 추석이후부터 지역구를 위해 힘차게 발로 뛰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취재진이 행사전 그와 가진 소통관련 인터뷰에서 그는 "국회의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지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언론과의 소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지역민과의 소통은 지역민의 궁극점이 해소 될 수 있을 때 까지 추적해서 관리 하므로서 지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각오를 가진 그의 출마의 변을 들으면서 이제 이곳 지역구의 앞날이 밝게 밝아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이곳 지역구가 새로운 지평이 활짝 펼쳐지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느끼게 해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이곳 영양·봉화·영주.(울진?)지역구에 활활 타오를 것으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윤근수/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8일부터 '2024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금리 자금지원으로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업체가 협약금융기관(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용자를 받을 경우 도가 3.5% 이내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등이며,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및 이차보전 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등이며,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및 이차보전 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오는 1월 19일까지 도 관광정책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금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현준태 도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에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아산시,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후계농) 3년간 월 90~110만 원 영농 정착 지원

아산시는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재액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들을 선발하여 월 90~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차등 지급하며, 사업 지원 희망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 이상에서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으로 올해부터는 이번 달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될 경우 최대 5억원(상환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인 후계농 육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석 농촌자원과장은 "아산시의 농업이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을 발굴해 변화하는 농업 현장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겠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만 18

김원호/기자

충남지역 로컬창조활동 위한 생태계 조성 나서야

생활권 단위 골목상권 중심...민간 참여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내 청년을 비롯한 창의적 인재 발굴과 유입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골목상권 고유의 '로컬브랜드 창출' 등 일명 '로컬창조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물질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개인중심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로컬창조활동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재생산하며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융합·협력을 통해 지역과 공생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충남연구원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원은 최근 '충청남도 로컬창조활동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충남리포트플러스 387호)에서 "로컬창조활동은 행정 단위보다 작은 골목과 마을 중심의 생활권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창의적 비즈니스 생태계를 키워 나간다는 것이 특징"

이라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을 비롯한 창의적인 새로운 주체가 이익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구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로컬리듬을 통한 로컬창업 지원과 로컬콘텐츠 정책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시도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골목상권 고유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미 충남을 비롯한 국내에서 로컬기반 청년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우수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 밝혔다. 특히 충남 공주시는 제민천 정비 및 골목문화재생 사업 추진과 함께 로컬엔지니어링(주)퍼즐랩을 중심으로 예술가 등 창의적 인재를 유입하고, 반경 3km 내 게스트하우스, 카페, 미술관, 식문화로컬기업, 독립서점 등 로컬업종이 집적되면서 청년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로컬생태계가 마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충남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립적 성장을 도모하는 로컬창조활동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 재활용을 위한 정책지원 △로컬엔지니어링 육성 △업종 간 협력체 구축 및 지원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한 청년기반 로컬인재 육성 정책 △로컬활동 지속성을 위한 공공재원 마련 및 민간투자 유인 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행정·재정지원의 조직체계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혁신과 개혁의 실행이 도민 삶에 연결돼야"

김영환 지사, 2024년은 도정 혁신과 개혁의 원년



"2024년 충북의 혁신과 개혁은 다방면에 걸쳐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1년 뒤 충북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2024년을 혁신과 개혁의 원년이라는 생각으로 도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충북 교통의 원년, 농업의 원년, 투자유치의 원년 등으로 생각하고 질적인 변화와 함께 어떤 혁신과 개혁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실행하라"며 "실행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체감되고, 삶에 연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과 개혁의 성과가 1년 뒤 전국적으로 빛나는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의 크기를 크게 갖고 담대한 제안을 통해 국가의 정책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출생 증가율 전국 1위'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충북의 성과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치하하면서 출생 증가를 위한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 발굴과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과 법률 개정안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운영 준비절차 착수

시설관리공단 내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 구성, 인계인수 준비

대전시는 2024년 7월 6일부터 중앙로지하도상가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민간)에서 관리·운영해 왔으나 올해 7월 5일까지 사용협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협약 만료 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원활한 관리 전환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내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고 인계인수 관련 업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중앙로지하도상가 관계기관(대전시·공단·운영위원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정례회의를 구성하여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전달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존의 점포 사용자 및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에 중앙로지하도상가를 일반(경쟁)입찰할 예정임을 통보했고 2024년 7월 6일부터 점포 사용자 선정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점포 사용자 감점평가를 올해 1월 중 착수할 예정임을 알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5월 입찰 절차를 완료한 역전지하도상가 사례를 예로 들며 "올해 중앙로지하도상가 공개경쟁입찰 및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관리 전환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영재산인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영세한 점포를 거쳐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지하도상가 운영체제 일원화, 효율적인 원스톱 통합 관리체계 구축, 투명한 시설 관리·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위·수탁에 따른 많은 장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800만 원 부과

태백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166건 1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8월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3건 1,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기사업 및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면허 건수가 증가하고, 5세대 이동통신 감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증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은 태백시의 2024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부재원"이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자 모집

원주시는 임금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에서 각각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인 720만 원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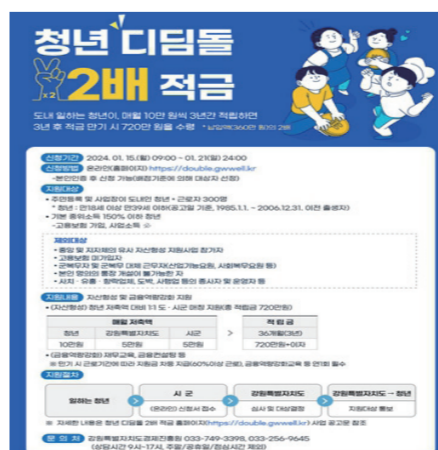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주지와 직장이 모두 원주시에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며,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18세~39세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총 300명을 모집하며, 시군 최소 배정인원은 5명이다. 최소 배정인원을 제외한 잔여 인원은 별도 심사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 복지정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설 명절 앞두고 공공 건설현장 '임금 체불' 원천 차단을 위한 집중 점검 실시

1. 18.(목) ~ 1. 31.(수) 지역 공공 건설현장 25개소 대상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는 설을 앞두고 지역 공공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발생 방지를 위한 '하도급 및 임금 체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반은 도시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5개반 50명으로 구성해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5개소를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 임금체불 발생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해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업체의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태, 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입찰 참가 제한, 영영정지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희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공공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해 훈훈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 9일(화) 아침~밤사이 최대 8cm 많은 눈예보...서울시, 제설 총력대응

출퇴근길 차량정체 및 눈길 미끄럼 대비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안전 당부



기상청에서 1월 9일 아침(06시)부터 밤(24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1월 8일 16시 대설예비특보(06시~12시 발효)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는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월 8일 23시부터 선제적으로 제설1 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강설이 예상되는 1월 9일 08시에 제설 2단계로 상향하여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 강설에 대비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장비 전진배치 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인력 8,488명과 제설장비 1,168대를 투입하는 등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

또한 제설2단계 발령에 따라 지하철 1~8호선·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1월 9일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

* 9호선, 우이신선선은 비상대기열차 운용하여 비상시 신속 투입
○ 출근 집중배차시간 : (평소) 07시~09시 (연장) 07시~09시 30분
○ 퇴근 집중배차시간 : (평소) 18시

~20시 (연장) 18시~20시 30분

서울시는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눈길 미끄러움에 대비하여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서울시는 이번 강설에 대비하여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출퇴근길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연수구,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80개 단지로 확대·관리 나서

지난해 점검 결과 ATP 오염도 측정값 검사 결과 8곳 모두 '안전'

연수구는 지난 12월을 기점으로 2023년도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2차 방역점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방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고안했다.

2023년도 상·하반기 방역점검은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로 지정된 8개 단지(송도더샵그린원크1·2차, 송도풍림아이원2단지, 연수서해그랑블1단지, 송도웰카운티3단지,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 송도더샵퍼스트파크 14·15단지) 72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입주민과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지정에 따른 방역관리 분야 만족도 조사에서도 99.25%가 '만족'으로 22년 대비 0.9%P의 만족도 상승률을 보였다.

연수구는 올해 기존 사업 효과를 분석·보완하고 방역관리 대상을 연수구 내 커뮤니티시설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체 80개 단지로 확대해 일상 속 안전한 방역환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2023년도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시설관계자와 주민들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생활방역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울산시,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추진

구군과 합동정비반 확대 등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계획 수립



울산시가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구축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 지역·시간대 노출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말을 이용해 분양광고 등 불법행위 수익이 급속적으로 주먹구구 및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부터 '울산광역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

추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점검계획에 따르면 우선 합동정비반 인원을 확충해 상시 운영하며 울산 전역을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경고시스템 등록, 전량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와 음란·퇴폐적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는 고발 조치를 확대해 나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아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합동정비반의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은 1만 5,862건으로 월 평균 1,586건에 달한다.

황규진/기자

인천시, 연평도 대피소 찾아 대피시설 등 안보태세 점검

해병대 연평부대서 안보상황 점검, 대피소·경보시설 점검

북한의 연이은 해안포 사격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연평도를 찾아 주민 보호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인천광역시는 1월 9일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연평도를 방문해 안보상황과 주민 보호 대책, 대피시설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이날 연평도 대피소를 방문해 비상식량, 모포, 비상약품 등 필수비품은 충분한지, 비상 발전기·난방기·출입문 등은 이상 없이 작동

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 비상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경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경보시설도 점검했다.

박 부시장은 "대피시설은 연평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곳인 만큼 시설의 관리와 개선을 철저히 해,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북한의 동향과 해병대의 군사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서해 최일선에서 지역방위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연평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

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안보가 위중한 때에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관·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과 6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에 따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양일째 걸쳐 주민보호대책회의 등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주민 대피 상황을 점검하며

주민 보호에 만전을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김종남/기자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경북교육청, K-EDU 원년! 에티오피아 디지털 교육 세계화에서 출발한다.

디지털 교육 세계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에티오피아 방문



2024년을 K-EDU 원년으로 선언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9일부터 13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정보화 장비 지원과 교원 정보화 연수 등에 관

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단은 임종식 교육감 등 경북교육청 관계자 6명과 차준찬 총괄실

장 등 APEC 국제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2024년 신규 교류협력국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한 현장 실태 파악과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단은 첫 일정으로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만나 참전용사의 고귀한 용기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 예정이다.

방문 둘째 날에는 현지 교육부를 방문하여 베르하누 네가(Berhanu Nega) 장관과 디지털 교육 세계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신품 정보 화장비 △따뜻한 경북-R컴퓨터 △수업 콘텐츠 △현직 교원 연수 등 교육 정보화 지원과 디지털 교육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종식 교육감은 코테베교육대학교(총장 베하네메스켈 테나)를 방문해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에티오피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K-EDU 세계화 첫걸음을 아프리카 2대 한국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서 하게 된 걸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8년 동안 과테말라공화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교육 정보화 환경과 교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을 포함한 총 2개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재)달성교육재단, '원어민과 함께 하는 달성영어캠프' 개최

(재)달성교육재단은 1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호텔 아젤리아에서 '원어민과 함께 하는 달성영어캠프'를 개최한다.

선발된 관내 초·중학생 48명과 영어 우수 고등학생 16명은 팀을 구성하여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영어 튜터링 활동을 진행하며 캠프 마지막 날에는 학부모를 초대하여 영어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관내 초·중학생과 영어 우수 고등학생들의 영어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교류를 통한 교학상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달성군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재)달성교육재단은 교육에 대한 군민의 높은 관심을 적극 수용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등 달성군이 앞서가는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안동시청소년수련관, 지역 어르신에게 따뜻한 나눔활동 진행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동시청소년수련관이 지난 28일 안동시 서구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지역 어르신에게 청소년이 직접 만든 반려식물과 드립백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청소년들이 나눔의 가치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며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반려식물 25개와 드립백 60박스를 서구동행정복지센터와 당북1경로당, 당북2경로당, 노인 3가구에 청소년들이 직접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안동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나눔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교육정보템e 전면 도입

투명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 내딛는 한걸음

경북교육청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교육정보템e)을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정보템e는 교육청의 지방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업무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교육청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금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집행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해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정보템e의 도입으로 △지방보조금의 전용 계좌 예치 △전용 카드를 통한 집행 명세의 시스템 등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현황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지고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집행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조사업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전용 계좌와 카드를 신청하고 교육정보템e를 통해 보조금 교부, 정산을 처리하게 된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매뉴얼은 교육정보템e 누리집에 탑재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로 도입하는 교육정보템e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편의성과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천교육지원청 경기공유학교 반도체 특화모델 선도교육지원청 최종 선정

이천시 반도체 인재 양성 집중, 속도감 있는 첨단미래인재 육성

이천교육지원청이 2024년도 경기공유학교 반도체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선도교육지원청에 최종 선정되면서 이천시와 반도체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이천교육지원청 반도체 특화모델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의 이해와 대학 연계 학생 주도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총 4기수, 연인원 80명이 참여하게 된다.

경기공유학교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12. 20일 이천시와 반도체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천교육지원청, 두원공과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이천시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교육지원

청이 반도체 특화모델에 최종 선정된 데에는 그동안 이천시와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하면서 연대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경기공유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 더 나아가 이천시가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부산교육청,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상·하반기 연속 우수상 획득



학생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행정을 펼쳐 온 부산시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하반기 연속으로 우수상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수상에 이어 세 번째 거둔 성과다.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해 매년 2차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우수사례 30건을 제출했고, 1·2차 예선 심사를 거친 8건 중 부산교육청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이 우수

상에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고, 임시출입문을 개설해 학생 이동 동선을 줄이는 등 통학로 안전망 구축에 힘써왔다.

수상자인 시교육청 학교안전총괄과 김주미 주무관은 부총리 표창과 인사상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학교를 깨우는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으로 우수상을 획득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같은 상을 받으며, 학생을 중심으로 두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중 민권인이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교육청은 상·하반기 연속 우수상 획득을 계기로 수요자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모니터링단은 적극행정 추진 모든 과정에 교육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 성과를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을 비롯한 교육 정책 수요자의 편에서 서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주시에서 시범 운영

학생 통학환경 개선 위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제공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파주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과 김경일 파주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번 협약이 이뤄지기까지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 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 도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파주시청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통학순환버스의 성공적 정착과 파주 지역 통학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학순환버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간 지원 ▲통학순환버스의 지속적 예산 확보 ▲통학순환버스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와 협력해 기존의 통학버스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중·고등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를 잇는 순환형 통학버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

1월 중순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2개 노선, 순환버스 10대를 운영해 통학을 지원한다.

통학순환버스 운영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통학에 어려움을 겪던 파주시 중·고등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데 통학순환버스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교육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다른 지역에도 통학순환버스를 확대해 더 큰 결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제도 개선 공모대회'에서 최고 등급 수상

전 부처 통합 수상자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선 전국 유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 부처 통합 행정제도 개선 공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4년 1월 2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임성민 주무관(교육행정 7급)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기 어려운 이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 방안 착안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최고 등

급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우수상 수상자 9명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임주무관이 유일하다. 더불어, 해당 제안을 제출한 경기도교육청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제안 총괄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임성민 주무관은 "평소 국민들의 생활이 보다 나아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근무해 왔던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거 같다"며,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서울시, 한강 자연성 회복 본격 추진... 올해 자연형 호안 89%, 365만 그루 한강숲 조성

올해 나무 7만 주 심어 한강공원에 총 365만 그루로 확대...르네상스 전보다 약 330%↑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호인 수달, 천연기념물 324-2호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한강.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인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본격화해 한강에 자연친화적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호안에 자리했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흙, 모래를 깔 뒤 물억새 등 푸르른 수풀을 심은 결과, 한강의 호안 중 82%가 자연형 호안으로 재탄생했고 올해 추가 조성해 89%까지 끌어올린다. 작년 한 해 동안 8만 주 나무를 심어 한강공원에 총 358만 그루의 나무가 살아 숨 쉬는 한강 숲이 조성됐고, 올해 7만 주를 추가 식재해 365만 그루로 확대한다.

조성된 지 평균 18년이 지나 노후하고 생태적 특성이 변화된 총 5개 한강 생태공원(고덕수변·암사·여의도갯강·강서습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을 재정비하기 위해 공원별 현황을 반영한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모래를 이용하는 습성을 지닌 수달을 위해 여의도갯강 생태공원에 모래톱 공간을 확대하고, 난지 등에 있는 습지의 퇴적물을 걷어 내 맹꽁이 등 다양한 수생물들의 서식처를 마련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합 나들이 공간인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을 올 상반기 중 개장하고, 연말에는 중랑천변 합류부에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노을 전망 명소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2014년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다양한 노력으로 여러 생물종이 발견되면서 생태계 건강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앞으로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첫째, 콘크리트 등 인공소재로 조성한 호안을 흙·자갈·큰 돌 같은 자연 소재로 복원하는 '자연형 호안 조성 사업'을 통해 '23년까지 46.9km 달하는 호안이 자연형 호안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전체 대상지 57.1km 가운데 약 82%를 달성한 수치다.

서울시는 한강변 전체 총 82km 호안 가운데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할 수 있는 57.1km 전체를 대상으로 복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자연형 호안 복원 대상이 아닌 24.9km는 점안 시설이 있거나 교량이 지나가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자연형 호안' 조성은 단순히 호안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닌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흙과 바위로 수변 완충지대를 확보해 생물 서식 공간을 마련하고, 나무 장대를 설치해 조류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강가

의 비탈면에는 물억새, 수크령 같은 물과 친밀한 식물을 활용해 자연 그대로의 하천 생태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작년 당초 목표량 보다 한강 서식종과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하고, 수변 경관을 향상시켜 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셋째, 작년에 당초 목표량 보다 114% 초과한 8만 주 나무를 심고, 올해 7만 주를 추가 확대해 한강공원에 365만 그루의 나무가 식재된 한강 숲을 조성한다. 시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25년까지 약 6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어 총 누적 371만 그루가 숨 쉬는 울창한 한강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한강숲'은 한강 호안과 둔치에 숲을 조성해 자연성을 회복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 등 도시환경 개선에 일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물가에는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숲',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이용숲', 도로 근처에는 소음과 먼지를 차단하는 '완충숲'을 조성한다.

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2007)을 추진하며 다수의 나무를 식재한 결과, 르네상스 이전 약 85만 그루였던 한강공원의 나무의 수는 르네상스 이후 올해까지 365만 그루로 약 33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속적인 나무 심기를 통해 한강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을 선사함은 물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조성된 지 평균 18년이 지난 5개 한강생태공원을 '보전을 위한 이용, 이용을 위한 보전'이라는 방향 아래 재정비한다. 시는 '한강생태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2023년 12월에 수립했으며, 오는 '26년까지 순차적으로 재정비를 완료한다.

1997년 9월 25일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인 여의도갯강생태공원이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한강에는 5개의 생태공원(여의도갯강, 강서습지, 고덕수변, 암사, 난지)이 도심 속 생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강생태공원은 시민 이용이 중심인 일반 한강공원과 달리, 생태계가 스스로 변화·발전하며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경과하며 자연적으로 생태적 안정을 이룬 구역이 있는가 하면, 시민 이용성이 생태성과 혼재되어 상호 간섭이 일어나거나, 간헐적인 침수로 인해 생태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구역도 생겨나고 있다.

습지가 많아 맹꽁이들의 서식처로 이용되는 암사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 강서습지생태공원의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그동안 쌓여있던 퇴적물을 걷어내 적절한 수심을 확보한다. 수달이 종종 발견되는 여의도갯강생태공원에는 일광욕을 즐기고 햇빛을 받아 온도조절을 하는 수달의 습성을 고려해 '수달모래톱' 공간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각 생태공원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시민과 자연이 서로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는 특화공원으로 재정비한다는 목표다. 시민 이용과 생태공간이 혼재된 곳을 공간을 분리하고, 생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시

민 이용 동선을 제공한다. 간헐적 침수지역에 식물의 자생여건을 조성하는 등 각 공원 특성별로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생태공원을 만들 예정이다.

넷째, 한강과-지천 합류부에 문화·자연·힐링이 어우러지는 노을을 조망하는 명소 '놀빛 광장'을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만든다. 올해 1호로 중랑천에 조성하고 '25년 이후 안양천, 성내천, 홍제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랑천 합류부는 현재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24년 노을 명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섯째, 1990년에 조성돼 30년이 경과한 낡은 잠실한강공원의 수명장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조성, 올해 상반기 중 개장한다. 향후 광나루, 잠원, 망원 수명장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형 물놀이장'은 기존 수명장의 콘크리트, 보도블록 등 정형화된 모습을 탈피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소재를 활용해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이다.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은 탁 트인 공간에서 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명장부터 실개천, 냇에는 푸르른 나무,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숲속 산책로, 모래 놀이터까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라마켓·요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어 즐거운 가족 나들이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5개 한강생태공원(고덕수변·암사·여의도갯강·강서습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원)에서는 한강을 보존하고 한강의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족제비 등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보는 프로그램부터 겨울철새·거미 관찰, 공공 연 연못에서 썰매타기, 자연의 소리 듣기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 즐길 수 있다.

강서습지생태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의 물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이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관찰하는 '강서습지탐방', 거미줄을 치고 조용히 먹이를 기다리는 숲은 사냥꾼 거미의 생활사를 알아보고 관찰하는 프로그램 '줄위의 사냥꾼' 등이 있다.

난지생태습지원 난지수변생태학습센터 추운 겨울 얼음이 20cm 이상 얼면 가족과 함께 거북이 연못에서 얼음 썰매를 타는 '옛날 얼음썰매'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주중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한강과 사람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인공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수변으로 탈바꿈하는 사업, 다양한 나무를 심어 한강에 푸르른 숲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한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여주시, 2023 자금운용 이자수익 51억원 달성

여주시는 세입·세출의 흐름 분석을 통한 공공자금의 운용으로 2023년 이자수익 51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약 33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 자금운용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세출규모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금리상승 등 영향에 맞춘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기예금을 적극적으로 예치했다.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대규모 세입·세출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확보된 자금을 공공예금에 방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

치한 결과다 또한, 정기예금을 지출 일정에 맞추어 만기 해지함으로써 공공예금 통장잔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을 장·단기 분산 투자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중우 여주시장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따라 가용재원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비 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과 국가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예산을 잘 운용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자금관리와 이자수익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김범상/기자



남해군 "청룡의 해, 신비로운 푸른 빛을 후학들을 위해 비추다."

남해군향토장학회 장학금 기탁 줄이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남해군 향토장학회 기탁이 쇄도하고 있다.

'카페 티움&목공간'을 운영하는 최정윤 대표는 4일 남해군청을 방문해 100만원을 기탁했다.

최정윤 대표는 "카페티움과 목공간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과 고현면에서 목공예 수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수업료를 지역 아이들 교육에 보태고 싶어 기탁한다"고 밝혔다.

카페 티움을 운영하는 최정윤·고정숙 대표는 정년퇴직 후 카페와 목공예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시작했고, 몸소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같은 날 나우시스템구조(주) 조영준 대표가 향토장학회 300만 원을 기탁했다.

조영준 대표는 "마음은 항상 고향을 향하지만 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일찍 고향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표는 경남 진주에서 기계공사 전문업체인 나우시스템구조(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동 봉화가 고향으로 재전 향유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2년에도 100만원의 향토장학금을 기탁 한 바 있다.

(주)소망전력 정동근 대표는 200만 원을 기탁했다. 정동근 대표는 "남해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려 한다.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훗날 빛을 낼 수 있도록 장학금을 잘 써달라."고 밝혔다.

정동근 대표는 고현 차면 출신 향유로 김해에서 소망전력을 운영하고 있

며, 2016년부터 매년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영강다숲캠핑장 사회적협동조합과 영강다숲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윤창호 대표는 향토장학회 300만원을 기탁했다.

윤창호 대표는 "영강다숲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볼 때면 흐뭇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때면 아이들 미래까지도 밝게 멀리 퍼졌으면 싶어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강다숲영농조합법인은 2009년부터 5회에 걸쳐 총 1,15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지난 1월 1일에는 남해읍 이미선 씨가 기탁 계좌로 50만원을 보내왔다.

이미선 씨는 남해읍 도매유통 옆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마음을 보내왔다.

이미선 씨가 판매하는 떡볶이는 남해군민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이 찾는 맛집으로도 알려져, 남해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들리는 곳이다.

1월 2일에는 서면 중현리 소재 불지암(주지 혜봉스님)에서 향토장학회 100만원을 보내왔다.

혜봉스님은 "부처님의 공덕을 지역 사회에 나눔으로써 남해군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불지암은 2013년부터 매년 향토장학금을 전하며 총 1,250만원을 기탁했다.

이용준/기자

경상남도,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앞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오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 지정과 디지털 자유무역지역(마산해양신도시 내 제2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국토부 장관에게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을 여러차례 건의했고, 경남도 관계자들은 산업부와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수십차례 오가며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뛰어왔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

그 결과 중견 수출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8일 법사위 심의와 1월 9일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자유무역지역 설치법에 따라 1970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1971년 85만 달러의 수출을 시작으로 2008년 50억 7천만 달러, 2022년에는 9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한 한국 경제발전을 선도한 역사적인 지역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던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외국계 입주기업의 이전, 기반 시설 노후화를 피하지 못했고,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재도약의 필요성이 입주기업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에만 지원되어 왔던

산업단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상남도가 주목하는 것은 주관부처에 따라 구분되는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해당 사업에 포함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제조 혁신과 산단의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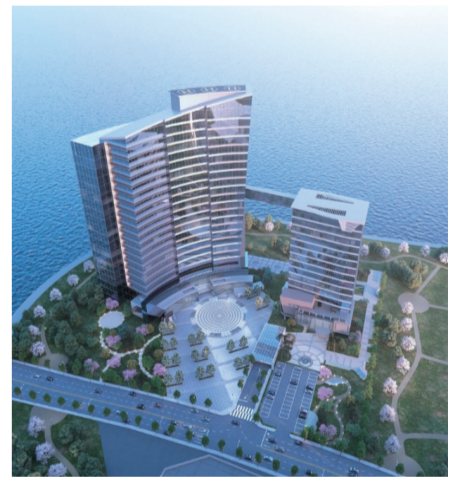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산업단지 활력 제고' 사업

입주기업의 연구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폐업 공장 등을 재개발 정보통신·지식기반기업을, 창업·강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산업단지 구조조도와화' 사업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22년부터 3년간 1조 4,243억원을 투입하여 기업 제조혁신 지원, 창업공간 확충, 근로자 복지개선, 산단 스마트·그린화 사업 등 제조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후속 사업

또한, 건폐율이 상향(70% → 80%) 되면 8개의 입주기업이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입주기업협회의 수요조사 결과(2022년 12월)도 있어,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재도약의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도 기존 자유무역지역



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산업과 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고시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영화 창작,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과 정보통신 기반의 비제조업 중심으로 조성한다.

특히, 경남의 주력인 방산, 지능형 기계,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중요한 D.N.A(Data, Network, AI) 기업을 집적화하여 창원국가산단과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제조업 중심의 산단과 연계한 디지털 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3만 3,089m² 규모로 지정되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3,860억 원(국비 2,900억원, 지방비 960억원)이 투입된다.

장재현/기자

영양 들어다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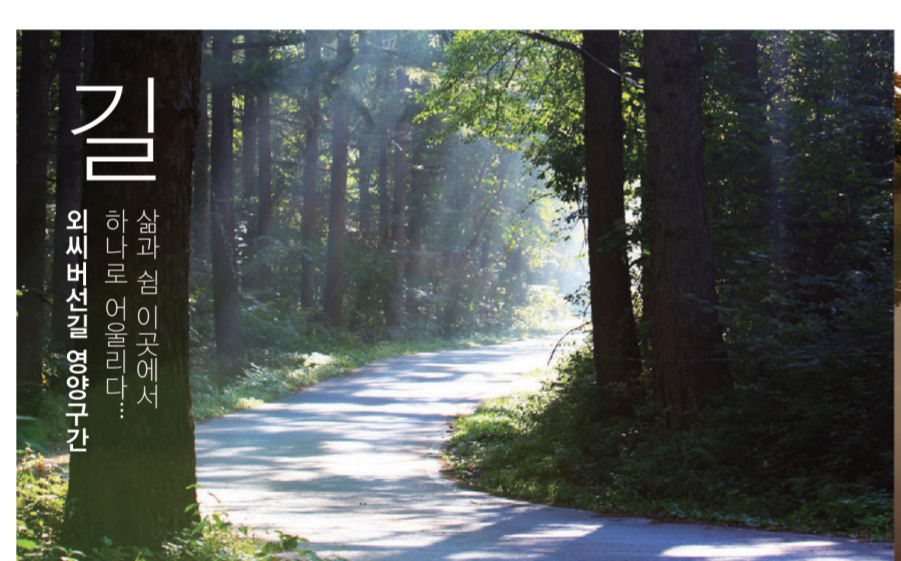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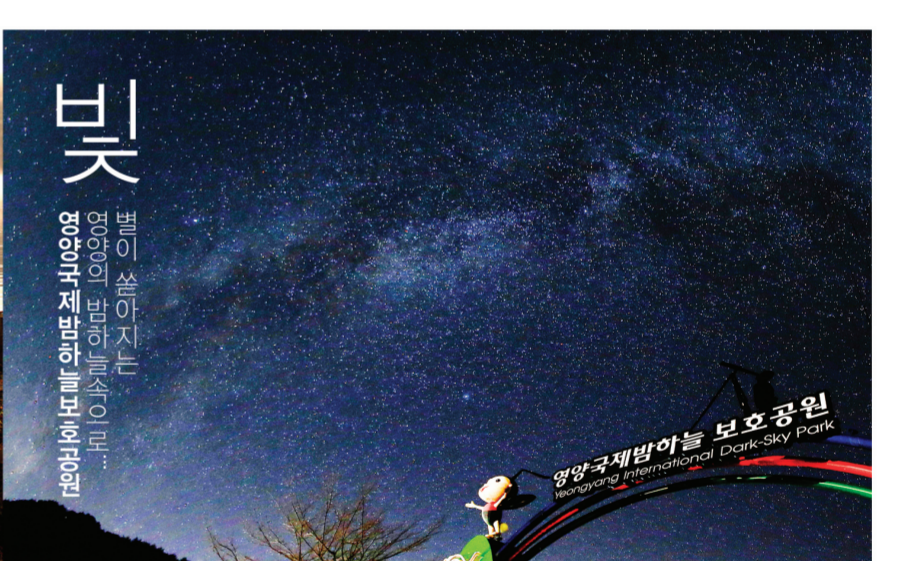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니면 언제라도
의외롭게 영영이 나신



물
영양의 평온하고
은은한 아름다움 느끼기
영영이 만끽하기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감상하기
영영이 천천히 즐겨주세요



얼
시냇물의 대가
서늘한 영영이
영영이 서식지



맛
사백년째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영이 서식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